

## 《난중일기》에서 본 이순신의 꿈과 인격의 몇 가지 측면: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이 부 영\*

### 국문초록

이순신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이순신의 인격의 몇 가지 의식적 측면을 살펴보고 이순신의 꿈을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무의식의 목적의미를 추론하고자 하였다.

그의 인간성은 알려진 바와 같이 충, 효를 철저하게 실천했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의 상과 일치한다. 《난중일기》에는 그의 강직함과 함께 매우 인간적인 감성, 오해와 정치적 박해를 겪어야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절망과 고독, 육친을 잃은 통곡이 숨김없이 묘사되고 있다. 일기쓰기와 이순신의 ‘아니마’의 또 다른 표현인 달밤의 시, 피리와 거문고 소리, 그리고 또한 불가해한 꿈을 보고 점을 쳐서 미래를 알아봄으로써 그는 그의 고독을 스스로 치유했다. 미래의 영웅을 키우고 이끌어준 어머니의 위대한 역할과 용이 말하는 모성콤플렉스와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순신이 평생 괴로워한 ‘흉인’, 원균이 이순신의 ‘그림자’로서 이순신이 의식화해야 했던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었다고 추정했다.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추측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난중일기》에 기술된 이순신의 꿈 중 꿈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기술된 꿈 32개와 이순신의 조카 이분(李芬)이 남긴 《이충무공행록》에 수록된 꿈 3개, 총 35개를 살펴보고 특히 원형적 꿈을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로 받은 인상은 꿈이 이순신에게 ‘신격에 의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사

접수일 : 2022년 9월 29일 / 심사완료 : 2022년 11월 23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12월 2일  
\*한국융연구원

**Address for correspondence: Bou-Yong Rhi, M.D., Ph.D., C.G. Jung Institute of Korea, 122 Seongbuk-ro, Seongbuk-gu, Seoul 02837, Korea**

Tel: +82-2-3673-2550, Fax: +82-2-743-5649, E-mail: cgjugkorea@naver.com

실을 되풀이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순신은 이를 바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자아의 팽창에 빠지지 않았다. 동시성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꿈과 이에 대한 이순신의 태도를 소개했다. 건강을 해치거나 편견에 빠질 위험을 경고하는 꿈도 있었고 ‘아니마’상, ‘자기’의 상징, 창조적 변환의 상징도 꿈에 나타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임을 시사하는 꿈이 있었다. 그는 이를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그런 생각에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현세적 왕보다 더 위대한 호국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항상 천명(天命)을 살폈다. 그리고 천명은 그를 영웅의 길로 인도하면서 영웅신화에 불가결한 고행의 시련을 주었다. 박해자와 위로하는 자가 함께 그의 길을 인도했다. 그의 어머니, 원균, 선조, 그리고 영의정, 유성룡까지 모두 이순신 영웅신화를 구체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순신은 죽고 신이 되었다.

**중심 단어 :** 이순신; 난중일기; 꿈; 인격; 영웅; 분석심리학적 해석.

## 서 론

역사적 문헌에 나타난 한국인의 꿈과 해석에 관한 일련의 연구<sup>1)</sup>의 하나로 《난중일기》에 기술된 이순신의 꿈을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꿈의 해석에 앞서 이순신의 의식상황을 《난중일기》와 이순신 연구자들의 여러 측면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살피는 작업을 하였다. 이순신의 인간관계 중 분석심리학적으로 해석될 부분을 지적했으나 의식상태에 관한 정보는 꿈의 해석에 필요한 만큼으로 한정했다.

역사적 인물의 꿈을 해석하여 저서로 펴낸 마리 루이제 폰 프란츠(Marie Louise von Franz)<sup>2)</sup>는 아득한 과거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인데 꿈꾼 사람에게 연상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 그 해석이란 추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꿈의 보상기능을 생각할 때 옛날의 의식상황을 그 당시의

1) 이부영 (1984): “한국인의 꿈에 나타난 원형상(1)-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정신의학보》, 8(1): pp2-9. 이부영(1984): “한국 전래해몽의 특징에 관한 연구(1)”, 《정신의학보》, 8(4): pp114-124.

2) Von Franz ML (1985): *Träume*, Daimon Verlag, Zürich, p87.

꿈을 통해 재구성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새로운 추론을 내릴 수 있고, 의식자료만 이용하는 역사학자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특정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고 하였다.<sup>3)</sup>

시대적 상황을 꿈의 해석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순신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어느 만큼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그의 모든 꿈이 전쟁터라는 비교적 단순한 긴장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꿈꾼 사람의 연상을 물을 수 없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순신의 꿈을 융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 해석함으로써 이순신의 무의식이 꿈꾼이의 의식의 무엇을 보상하는지, 한마디로 꿈이 꿈꾼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지, 무의식의 의도와 목적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sup>4)</sup> 동시에 이순신의 인격을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의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 대상 자료:

꿈의 자료는 주로 《난중일기》에서 취하였다. 《난중일기》는 노승석과 박혜일 등의 번역본<sup>5)</sup>을 사용하였다. 난중일기의 원본과 대조할 수 없었던 것이 유감이지만 역자들의 번역을 신뢰하기로 하였다. 이순신의 일상에 관해서는 순천향대학 이순신 연구소 발행, 《이순신연구논총》에 실린 많은 논문<sup>6)</sup>을 참조하였다. 박종평의 이순신의 꿈과 점에 관한 연구는 꿈에 대한 이순신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유익한 단서를 제공하였고 《난중일기》에 기록되지 않은 흥미로운 꿈 세 개(《행록》에 수록)를 소개하고 있어 이를 연구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었다.

3) Von Franz ML (1985): Ibid., 같은 쪽.

4)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제3판)》, 일조각, 서울, p203, p205, 혹은 제5장 꿈의 해석 참조. 또한 Jung CG,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1): C.G. 융 기본저작집 제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숲출판사, 서울, pp150-205.

5) 이순신, 노승석(역) (2016): 《쉽게 보는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서울.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증보교감 완역,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서울. 박혜일 등(역) (2014): 《이순신의 일기(개정증보판)》, 서울대출판원, 서울. 박혜일 등(역) (2016): 《이순신의 일기 (개정증보판)》, 시와 진실, 서울.

6) 개별적인 논문은 고찰 부분에서 제시될 것이다.

## I. 《난중일기》를 중심으로 본 이순신의 인간성에 관한 소고

융학파의 꿈의 해석에서는 꿈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꿈꾼 사람의 의식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옛날 인물인 경우에는 꿈의 심상에 대한 연상을 수집할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꿈꿀 당시의 현실상황과 꿈꾼 사람의 심성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순신의 죽음에 관한 논란, 인간관계에 관한 논의를 분석심리학적 견지에서 꿈의 해석이 필요한 만큼, 《난중일기》와 이순신 연구자들의 견해를 참고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어머니와의 관계

이순신이 효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sup>7)</sup>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의 어머니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절절히 표현되어있고 항상 직접 혹은 사람을 시켜 문안드렸다는 사실이 기술되어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어머니에 대한 소회, 아들들에 대한 염려에 비해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는 것이 특이했다. 부인이 아파서 무척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 부인에 대해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닌 듯하다.<sup>8)</sup> “어머니가 그림다”는 말을 자주 했는데 그것은 주위의 오해, 질투, 모략 증상의 화살로 만신창이가 되어 극도로 고통할 때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순신은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 특히 달밤에는 잠 못 이루고 나라 걱정뿐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망연히 비탄에 젖어있던 때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잦았다. 아마도 이순신의 어머니는 영웅의 어머니답게 영웅이 숙명적으로 겪어야 할 고통을 알고 아들의 고통을 어루만져주면서 용기를 북돋우어줄 수 있는, 강하면서도 지혜로운 어머니였음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순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남달랐던 것 같다. 노승석은 ‘이순신의 생애’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선조 22년 정음현감에 임명되었을 때(45세) 관리의 복무규정을 어기면서 20여 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부임지로 갔다. 특히 일찍 아비를 잃은 어린 조카들을 극

7) 임원빈 (2013): “인생관을 통해 본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1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pp11-15.

8) 현재까지도 부모 앞에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애정 표시를 삼가는 풍습이 있다.

진히 보살폈는데, 그에게는 규정보다 인간의 도리가 우선이었던 것이다.<sup>9)</sup>

복무규정이 무엇인지 모르나 이순신 같은 원칙론자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규정보다 인간의 도리가 우선’인 경우도 있는 법이다. 이순신이 어릴 때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않는 대범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억울한 사람 편에서 가해자를 찾아 반드시 굴복시켰다는 이야기<sup>10)</sup>로 미루어 보아도 두 형님이 연달아 돌아가심에 남은 어린 조카들을 긍휼히 여겨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였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의 어머니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이 매우 특별해 보인다. 이순신이 용이 말하는 모성콤플렉스<sup>11)</sup>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진단’한다면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다. 최소한 그는 용이 소개한 임상적으로 문제가 있는 병리적 현상을 지닌 부정적 모성콤플렉스<sup>12)</sup>의 범주에 해당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 모성콤플렉스의 긍정적 작용으로 용이 제시한 특성들 즉, “에로스의 분화, 미감각의 발달, 공감능력, 역사애호, 놀랄만한 우정으로 남성간, 이성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능력, 종교적 감정의 보고—신현(Epiphanian)의 바람직한 그릇”<sup>13)</sup> 등은 어떤가?

조금씩 이순신에서 다 발견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순신은 긍정적 모성콤플렉스’의 영향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성콤플렉스의 긍정적 측면이 반드시 부정적 측면을 전제로 하여 내세운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모성콤플렉스의 부정적 작용을 보충하는 의미의 긍정적 작용이라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용은 모성에 대한

9) 이순신, 노승석(역) (2016): 《쉽게 보는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서울, p34.

10) 이순신, 노승석(역) (2016): 위의 책, p30, p31.

11) Jung CG (1954): *Die Psychologischen Aspekte des Mutterarchetypus*, (in) Von den Wurzeln des Bewusstseins, Rascher Verlag, Zürich, pp89-135.

용은 ‘모성콤플렉스’라는 말의 개념을 별로 자세히 정의하지 않은 채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동경’으로서 일차적으로 정신병리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포괄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의 긍정적 작용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모성콤플렉스가 좁은 의미의 병리현상에 국한되지 않음을 천명했다. Jung CG, 위의 책, p103. 이부영 (1987): “Jung의 모성상과 모성콤플렉스론”, 《심성연구》, 2(2), pp73-88, 그 중 p77 참조.

12) 동성에, 동주아니즘 혹은 성적불능, 약물남용, ‘자가거세-광기-이른 죽음’(Kybele-Attis형), Jung CG (1954): Ibid., pp101-102.

13) Jung CG (1954): Ibid., p103. 이부영 (1987): 앞의 논문, p79.

그리움의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어머니’란 바로 무의식임을 분명히 하였다.<sup>14)</sup> 이때의 ‘어머니’는 현실의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이마고’, 모성 원형상이다. 이순신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고 꿈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 ‘무의식’이라 부르고 조선왕조 당시 아마도 ‘하늘의 뜻’이라 부르던 무의식의 의도를 알고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고 그 점에서 그는 무의식을 탐구하는 현대의 모든 심리학도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순신의 어머니 변(卍)씨는 아들을 끼고 도는 본능적인 모성이기보다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하면서도 가정교육에 엄격하였다’고 한다.<sup>15)</sup> 아들의 유아적 의존을 무조건 허용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순신의 선친은 1583년 이순신이 39세 때 별세하였고<sup>16)</sup> 그 뒤 홀로된 어머니는 이순신 진영과는 멀리 떨어진 아산에 살고 있었다. 전란 중에 홀로 살고 있는 병약한 노모를 걱정하는 마음이 왜 이렇게 강력하면 안 되는가? 더구나 억울하게 죄인이 되어 백의종군하러 가는 도중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이동했을 때 충과 효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고 있는 조선왕조의 무사<sup>17)</sup>의 가슴에 천추의 한을 남긴 점을 이해한다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과한 것이 아니다. 물론 이순신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특별한 어머니였고 그런 의미에서 아들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들을 영웅의 위치로 인도하는 일종의 ‘영혼의 인도자’(Psychopompos)의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생각해본다. 모성본능, 아니마(아니무스)의 문제는 꿈의 고찰에서 다시 살피게 될 것이다.

14) Jung CG (1952): *Symbole der Wandlung*, Rascher-Verlag, Zürich, p357, p377, p399, p400, p515, p571, p678.

Jung CG (1967b): *Analytische Psychologie und Weltanschauung (in) Jung CG*, G.W.Bd. 8, Rascher-Verlag, Zürich, pp409-434.

Jung CG (1967a): *Über die Energetik der Seele (in) Jung CG*, G.W.Bd. 8, Rascher-Verlag, Zürich, pp3-73.

15) 박혜일 등(역) (2016): 《이순신의 일기 (개정증보판)》, 시와 진실, 서울, p8.

16) 박혜일 등(역) (2016): 위의 책, p10.

17) 충·효를 가부장 사회의 낡은 도덕율이라고만 보고 조선조 시대인의 가치관을 현대의 서구적 가치적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너무 단순한 시각이다. 돌은 집단 의식이면서 원형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부영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p298.

용도 우리의 자기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Jung CG (1951): *Aion*, Rascher-Verlag, Zürich, p99(각주) 참조. 이부영 (2021):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p87-88 인용.

## 2. 원균과의 관계

이순신의 경쟁자로 이순신을 혈투고 전투에서도 비협조적이었다는 경상우 수사 원균에 관한 언급은 예외없이 최악의 표현으로 일관된다.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3회에 달한다.<sup>18)</sup> “원균은 그 흉악하고 음험함을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다.”, “그 흉악하고 음험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이루 말로 하지 못하겠다.”는 표현이 대부분이다. 물론 그것들이 원균이 이순신에 대한 거짓 상소를 올린 것을 듣고 반응한 것이므로 노상 근거가 없는 감정반응은 아니다. 그러나 원균이 이순신에게, 이순신이 원균에게 결코 무관심할 수 없는 존재임은 틀림없고 이순신은 원균에게서 질투심에 가득 찬 경쟁자 이상의, 보기만 해도 끔찍한, 악한 괴물 같은 존재를 보고 있었던 것 같다. 분석심리학에서는 그런 경우 그림자의 투사를 말한다.<sup>19)</sup> 이순신과 원균은 서로 자신 안의 무의식의 그림자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었지 않았나 짐작된다. 심리학적 유형 상, 원균은 외향적 비합리적 유형이고 이순신은 내향적 합리적 유형이라고 추정된다. 서로 쉽게 친해질 수 없는 유형들이지만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숨은 관심이 둘 사이를 끈끈하게 맺어주고 있어 적대적이든 아니든 서로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투사된 그림자는 각자의 무의식의 열등한 측면으로 자신에게 되돌려서 의식에 통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원균은 이순신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역사 속에 등장한 영웅의 어두운 대자였다. 《난중일기》에는 원균의 흉악함을 호소하면서도 원균이 직접 오거나 이순신 자신이 가서 만나면 으레 술을 마셨고 때론 몹시 취했다고 하는데 그때만은 아마 모든 허물을 벗어 버리고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sup>20)</sup>

18) 김경수 (2013)는 원균 관련 기술이 120번에 이른다고 하였다. 김경수 (2013):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1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p11.

19) ‘그림자’와 그 투사에 관하여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제3판)》, 일조각, 서울, pp86-95. 이부영 (2021):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① 《그림자, 우리 안의 어두운 반력자》, 한길사, 서울, pp89-143 참조.

20) 이순신과 원균의 관계에 대한 심층심리학적 해석은 더 많은 예시와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겠으나 이 자리가 꿈을 논하는 자리이므로 요약에 그쳤다. 원균의 눈에는 이순신이 자신의 공을 가로채는 위선자로 보였고 이순신에게 원균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무고하며, 부하를 사지로 몰아넣는 나쁜 장수요 ‘흉인(兇人)’으로 보였다. 김경수 (2013): 앞의 논문, p12 참조.



### 3. 장수의 눈물

《난중일기》에는 영화에서 본 영웅적인 전투 장면과 승전의 감회, 기발한 전술, 거북선의 위력, 일치단결된 조선 수군의 용맹성 등에 관한 기술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있다고 해도 객관적으로 간단히 개요만 소개했고 특별히 감정을 섞지 않았다. 군율을 어긴 자들의 처벌, 곤장 20대에서 참수와 효수에 이르기까지 사실만 적었다. 한번은 바다에서 왜군을 맞아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장수 몇이 겁을 내서 앞으로 나가 싸우기를 주저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신호를 보내 “도망가면 군율을 어긴 죄로 참수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배를 적진으로 몰고 가 포를 퍼부으니 다른 배들이 합세하여 적을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록되어있다. 군율을 어기는 자들에 대한 비정하리만치 엄격한 처벌을 하며 술선수범으로 흠어지기 쉬운 군사를 규합하는 고달팠이 군데군데에서 전달된다. 그리고 왜군이 쓸고간 황량한 마을에서 목격한 주민들의 비참한 고통에 마음 아파하며 왜군이 전 국토를 유린하면서도 감히 두려워 가까이 가지 못한 전라 좌수영 지역에 감도는 폭풍 전야의 고요 또한 어느 영웅적 전투이상의 현실로 실감나게 묘사된다. 그리고 달밝은 밤에 홀로 깨어서 비통한 마음을 달래고 때론 통곡하며, 때론 한 많은 눈물로 마음을 적신 한 장수의 내면의 모습이 꾸밈없이, 아니 어쩌면 과장되게 독자의 심금을 울린다.

일기란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독백이다. 물론 먼 훗날에 누군가가 그것을 발견하여 읽어줄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일차적으로 그것은 개인적인 사사로운 기록이다. 그래서 은밀한 마음을 기탄없이 드러낼 수도 있다. 실제 밖에서 보이는 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른 내면의 모습이 묘사된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의 진면목에 가까운 모습일 수 있다. 《난중일기》에 묘사된 이순신의 눈물 많은 다정다감한 성품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sup>21)</sup>

그러는데 이 글을 쓰고 있을 무렵 우연히도 한 역사학자가 어느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딱딱한 도학자이기보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었으며 그 근원이 사람다움의 시작인 정(情)에 있다고 하면서 맹자가 공자의 인(仁)의 근거로 측은지정(惻隱之情)을 제시했음을 지적했는데 일리가 있

21) 김경수 (2013): 앞의 논문, p1, p16. ‘자기갱신, 자기치유’를 도모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하나, 꿈과 접을 본 것이 예민한 성품 때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는 말이다. 어쨌든 《난중일기》는 단순한 사실의 기록을 넘어 자기의 심정을 마음껏 토로함으로써 이순신에게는 하나의 치유의 장이었을 것이다.

#### 4. 이순신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

이순신이 전투에서 살아남았을 경우 전공은 인정받지 못하고 다시 여러 가지 모함을 받을 것이 두려워 죽기를 각오하고 갑옷도 안 입고 적진으로 가까이 가 진두지휘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이른바 자살설에 대하여 연구한 논문을 읽어보았다.<sup>22)</sup> 대개 자살론에 비판적인 논문으로 공통적으로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는 이순신의 일관된 사생관과 전투 때마다 항상 최전방에서 전투를 지휘했고 이미 여러 차례 부상을 당한 바 있는 이순신의 평소의 임전태도에 비추어 보아 그것은 근거 없는 상상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런 설은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30여년 지난 뒤에 제기된 이야기로 갑옷을 벗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역사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언급이기 때문에 사료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또한 갑옷을 벗었다는 말인 면주(免胄)는 ‘갑옷을 벗었다’는 뜻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지적한 논문도 있었다.<sup>23)</sup> 전공을 칭찬하고 상을 주기는커녕 자기에게 돌아올 비난을 은폐하기 위한 터무니없는 모함을 당했고 가장 치욕적인 불충의 죄명으로 죽임을 당할 위기를 여러 번 겪은 이순신의 죽음을 측은히 여긴 친지들이 이순신을 무능하고 비겁했던 왕과 당파간의 갈등의 희생자로 ‘상상하게’ 만들었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모두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순신이 갑옷을 벗고 적의 총격에 자신을 노출시켰다는 주장이 분명 사실이 아니고, 전공을 세운 뒤 살아남아서 겪게 될 터무니없는 모함이 두려워 스스로 목숨을 내던졌다고 보는 것은 좀 일방적인, 단순한 생각이다. 이순신은 자신의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강직함을 지

22) 노승석 (2007): “충무공의 전사에 대한 문헌적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8,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pp1-18. 임원빈 (2018): “이순신의 사생관과 순국의 의미”, 《이순신연구논총》, 2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pp77-124. 홍순승 (2012): “이순신 정론 V: 이순신 사망설의 진위논쟁”, 《이순신연구논총》, 17,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pp171-205. 강영오 (2003): “이순신 고행과 사생관”, 《이순신연구논총》, 1,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pp1-13. 임원빈 (2013): “인생관을 통해 본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1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pp1-24.

23) 노승석 (2007), 홍순승 (2012): 앞의 논문, p4, p5.

니고 있었다. 그것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기도 했다.<sup>24)</sup> 그는 살아서 겪을 수모가 두려워 일부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심약한 위인이 아니다. 그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그리워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다.<sup>25)</sup>

사람들은 왜 자살이다 아니다 만을 가지고 논란하는가. 아마도 우리 민족의 영웅의, 나라를 위한 순국 정신이 일개 심약한 도피심리로 그 가치를 훼손할까 하는 염려 때문일까. 이순신에 대한 지나친 성웅화(聖雄化)에 대한 반발을 말한 연구자도 있다.<sup>26)</sup> 자살을 주장하는 사람은 왜 그리 근거도 희박한 사실을 붙들고 조선왕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가. 부당한 집권층과 통치자의 횡포에 대한 의심과 분노, 피해자의식 때문인가. 이순신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논란은 또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대상과 모습을 달리하며 현재까지 되풀이되고 있는 대형사고의 ‘음모론’, ‘한풀이’의 형태와 다르지 않다.

나는 이순신을 두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영웅신의 화신으로, 다른 하나는 인간으로서.

그는 비록 영웅신화에서 볼 수 있는 기이한 출생과 박해로 점철된 성장과정을 겪지는 않았지만 청년시절부터 좌절과 오해와 질시의 대상으로 핍박을 견디며 살아갔다. 그는 철저하게 유교선비의 충효, 천명에 따르는 자세, 대의를 위하고 공명정대한 삶을 살았다. 그는 영웅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영웅의 자질을 가진 자, 아니 영웅 그 자체였다. 그래서 신의 능력이 그를 통해 발현되었고 치르는 전투마다 승리로 이끌었다. 그의 시선은 왕권을 넘어 국가와 민족의 안위에 향하고 있었다. 그는 나라나 백성보다 왕실과 파당의 권익에 눈이 어두운 왕과 간신배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반역죄로 죽을 뻔했고 백의종군해야 했다. 그는 왕명을 따르지 않았고 왕보

24) 임원빈 (2013): “인생관을 통해서 본 이순신”, pp16-17 참조: 1587년 함경도 녹둔도 둔전 관으로 오랑캐의 습격을 당했을 때 용감하게 싸워서 포로로 끌려가던 병사들을 다수 구하고 적장을 죽였는데도 평소에 이순신이 병력증강을 욕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병사, 이일이 도리어 그를 폐장이라 무고하여 파직시킬 때 이순신이 강력하게 항의하여 죽음을 면한 사실.

25) 임원빈 (2018): “이순신의 사생관과 순국의 의미”, p79 참조.

26) 장학근 (1993): “충무공 이순신의 하옥죄명, 전몰상황, 자살론, 순국론에 관한 검토”, 《학예지》, 3,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서울, p151.

다 더 큰 대의를 따랐다. 그것이 그의 충의(忠義)였다. 그는 《난중일기》에서 한번도 왕을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다. “나는 그대를 버렸지만 그대는 나를 안 버렸도다.” 이순신 사후 선조가 이렇게 말하며 참회했다고 한다.<sup>27)</sup> 그러나 《난중일기》는 그의 꿈을 통해서 그가 영웅임을 증명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달 밝은 밤 홀로 눈물 흘리며 느꼈을 한과 비애, 말하지 못한 많은 의미가 응축된 통곡 속에서 나는 이순신의 인간으로서의 고뇌를 본다.

《난중일기》에서 자주 표현한 ‘죽고 싶다’는 말은 나에게 심상치 않게 들렸다. 자신을 세상에 나오도록 소개했고 줄곧 지지해준 류성용이 실각했다는 소식, 그리고 막내아들의 죽음은 분명 이순신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를 계속 절망에 빠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상황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통한의 심정이다. 이순신은 평소처럼 싸움터에 나가 치열한 전투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앞장서 벌였고 많은 적선을 쳐부수다가 적의 총탄에 맞아 죽었다.

## 5. 이순신의 고독

이순신의 자살설과 관련하여 그의 “죽고 싶은 마음”이 현실도피적인 자기파괴 충동에서 나온 마음인지를 조금이나마 알아보기 위해서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감정상태, 특히 홀로 있을 때, 혹은 달밤에 표현된 그의 감정을 살펴보았다. ‘홀로’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는 지적은 다른 연구자도 한 일이 있지만, 이순신은 일기에서 홀로 빈 방이나, 수루에 앉아있을 때 “온갖 생각, 온갖 근심, 비통함이 가슴에 치밀어 마음이 어지러웠다”거나 “월통한 마음”, “심화가 만 갈래”라는 표현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뒤척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를 예민하고 우울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1592년 5월부터 1597년 10월까지의 5년 9개월 사이에 홀로 방에 있을 때의 심란한 상황을 묘사한 대목은 총 14회에 불과하다. 그것도 1594년 5월(1회)과 6월(3회), 7월(1회), 총 6회와 1597년 5월에서 11월 사이(6회)

27) 홍순승 (2012): 앞의 논문, p194에서 《李忠武公 全書 卷首敎諭》 재인용.

이순신과 선조와의 관계는 마치 구약의 욥과 야훼신과의 관계를 방불케 한다. 그토록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이순신은 난중일기 어디에서도 임금에 대해 불평불만을 말한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일관된 인내와 충성이 사후에 권력자의 심경의 변화(회개)를 가져온 점도 비슷하다. Jung CG, 한국용연구원 C.G. 용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1): C.G. 용 기본 저작집 제 4권,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중 욥에의 응답, pp304-445 참조.

에 집중되고 1595년과 1596년에 각 1회 기술되어 있다.<sup>28)</sup>

1597년은 대역죄인의 누명을 쓰고 서울로 압송, 고문 끝에 ‘백의종군’의 치욕적 명령에 따라 임지로 가는 도중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고 죄인의 몸으로 장례를 끝까지 치르지 못한 불효를 통감했고 또한 사랑하는 막내아들의 전사를 계기로 한 애도와 통분의 정을 느낀 시기로서 당연히 강렬한 슬픔, 통한을 나타낼 만한 상황이었다.

1594년 일기에서 얼핏 보기에 직접적인 동기는 불명확하지만 1월부터 4월까지의 일기를 통해서 이순신의 마음을 어지럽힌 것이 무엇이었는지 추정할 수 있다. 그것은 전란 중 일어난 적의 노략질, 굶어 죽어간 영남의 격군, 그 와중에 여색을 탐내는 장수들, 원군과의 불편한 관계, 고을 아전의 간악한 짓, 강도 출몰, 임금을 섬기는 자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분노, 그리고는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에 대한 염려,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나랏일이 이려고서야 싸움이 평정될 수가 만무하여 천장만 쳐다보게 될 뿐이다.”<sup>29)</sup>

달빛은 이순신에게 ‘홀로 있음’ 만큼이나 강력한 정신적 자극제였다.<sup>30)</sup> 그것은 많은 시인이 공유하는 특징, 아니 자질이였다. 고독과 달빛을 통하여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 영원한 미지의 세계를 호흡한다.

1595년 8월 15일 중일 여러 장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취한 날 밤 이순신은 말했다. “희미한 달빛이 수루를 비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시를 읊었다.”<sup>31)</sup> 그는 시인이었다. 달빛은 무의식에 잠재한 근심, 번잡한 마음, 만 갈래의 나그네 회포,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내면서 동시에 창조적 시심(詩心)을 불러 일으켰다. 달밤에 관한 기록이 《난중일기》를 쓴 전기간에서 7회에 불과했지만 강력한 인상을 주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홀로 앉아 잠이 안와서 괴로울 때 그는 사람을 시켜 피리를 불게하고 잠들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죽

28)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중보교감완역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서울, p210, pp216-217, p222, p224, p307, p335, p414, p416, p442, p486, p492.

29) 압행어사 유용인의 비밀장계초안을 보고 이순신이 크게 탄식하고 있다; “나라의 위급한 난리를 생각하지 않고 다만 눈앞의 임시방편에만 힘쓰고 남쪽지방의 억울하다고 변명하는 말만 들으니 나라를 그르치는 교활하고 간악한 말이 진회가 무목을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나라를 위하는 아픔이 더욱 심하다(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193).”

30)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308(1595), p318(1595), p335(1596), p384(1596), p441(1597), p444(1597), p455(1597).

31)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308(1595. 8. 15).

음이나 자기파괴의 충동을 시사할 만한 기술을 찾을 수 없었다.

이순신이 죽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고 그 대목이 이순신 자살설의 배경으로 의심될만한 것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처하고 있는 상황에 알맞는 인간적 애도 반응임을 알 수 있었다. 이순신은 1597년 4월 15일 어머니가 자기를 보기 위해 배를 타고 오다가 선중에서 돌아가신 뒤 배에서 늦게 입관을 마치고 4월 16일 관을 집에 모시어 빈소를 차렸음을 기술한 다음, 자기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배를 내려) 마을을 바라보니 찢어지는 아픔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오라  
남쪽으로 갈(백의중군하려 임지로 갈) 일이 또한 급박하니 울부짖으며  
곡을 하였다. 다만 어서 죽기를 기다릴 뿐이다.<sup>32)</sup>

- 길을 떠나며 어머님 전에 하직을 고하고 울부짖으며 곡하였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사이에 어찌 나와 같은 사정이 있겠는가.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sup>33)</sup>

1597년 5월 6일 형님들이 함께 나타나 함께 슬퍼하는 꿈을 꾸 뒤 이순신은 다음과 같이 슬회한다.

아침저녁으로 그림고 원통한 마음에 눈물이 엉겨 피가 되건마는 하늘은 어찌  
아득하기만 하고 내 사정을 살피주지 못하는가. 왜 어서 죽지 않는 것인가!<sup>34)</sup>

억울하게 불충(不忠)의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 어머니 장례도 치루지 못하는 불효마저 저지르니 이 참담한 심경에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느니 ‘왜 어서 죽지 않는 것인가’라는 통한의 부르짖음이 나오는 것은 결코 병적인 자해충동의 표현이 아니다.

1597년 10월 14일 막내아들 면의 전사 때도 처절한 감정을 죽은 형해(形骸)만 남은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다.<sup>35)</sup> 그는 당시 남은 가족에 대한 가장으로서의

32)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10(1597. 4. 16).

33)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같은 쪽(1597. 4. 19).

34)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15.

35) “내 아들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느냐. 영특한 기질이 남 달라서.../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네 몸에 미친 것이니 이제 내가 세상에/살아있는 들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너를 따라 죽어 지하에서 함께/지내고 함께 울고 싶건만, 네 형, 네 누이, 네 어머니 의지할 것이/없이 아직은 참고 연명한다마는 내 마음은 죽은 형해만 남은 채/부르짖어 통곡할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한 해를 지내는 것 같구나...”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p496-489.

책임을 저버릴 만큼 죽음에 쏠려 있지 않았다.

이상의 간략한 고찰로 이순신이 행어나 무의식 속에라도 자살, 혹은 자결충동에 사로잡혔었는지 하는 의문이 해명되었기를 바란다. 인간은 극도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은 스스로 파괴, 자신을 없애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순신은 그러지 않았다. 목숨은 하늘이 관장한다는 신념이 있었고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죽을 자리와 때는 하늘이 정함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늘이 그 때와 장소를 정해 주었다. 하늘은 이순신을 전장에서 죽게 함으로써 그를 나라를 지키고 민족의 정신적 도덕적 함양을 길이 자극하기 위하여 영웅신으로 만들었다. ‘하늘’이 무엇인가, 분석심리학에서는 ‘자기’의 상징이다. 자의의식 너머의 객체적 정신, 우리 마음속의 핵심적이며 자율적인 조절자, 자아를 초월한 타자(他者)로서 전체정신을 실현케 하는 자이다.<sup>36)</sup> 죽음을 종말이 아니고 삶의 완성이라고 본다면 그의 죽음은 ‘자기’의 의도와 일치된 숙명적 사건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 II. 《난중일기》에 기술된 이순신의 꿈

### 1. 이순신의 꿈에 대한 태도

얼핏 보기에 《난중일기》에 기술된 이순신의 꿈은 평범해 보인다. 평소의 행동이나 관심사가 그대로 꿈에 반영되었던 것 같고, 현재의 시각으로 볼 때 신화적, 혹은 원형적 상들이 등장하는 꿈도 이순신의 영웅적인 행위를 그대로 이미지화한 것 같아 조금도 이상한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꿈은 심리학적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로 보인다.

자신의 꿈에 대한 이순신의 태도는 주로 점을 치는 마음처럼 ‘길이나 흉이냐’, ‘무슨 징조인가’를 가리는데 있다, 동시에 꿈에 나타난 중요한 인물상이 주는 충고와 지시는 매우 존중되어 주저 없이 그 뜻을 따르기도 했다. 현실과 관련지어 자가류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있었으나 무조건 모든 꿈에서 미래의 예시나 지시를 찾아보려 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36) 홍순승 (2012): 앞의 논문, p194에서 《李忠武公全書 卷首 教諭》 인용. 자기(Selbst)에 관해서는 이부영 (2021):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㉓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참조.

꿈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슨 뜻일까?’ 의문부를 달았다. 대개 원형적인 꿈에서 그러했다. 여인이 등장하는 극히 드문 꿈에 대해서는 ‘우습다’는 반응으로 끝맺었다. 그는 원형적인 꿈속에 나타난 위대한, 혹은 용맹한 존재와 자신을 바로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심리학적 팽창(inflation)<sup>37)</sup>에 빠지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꿈을 꾸 사람의 당시 심리적 상황이나 꿈에 대한 연상을 물어볼 수 없는 처지에서 내린 추론이다.

이순신이 친 점의 적중도가 매우 높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그만큼 미지의 질서를 알고자 하는 자세가 간절하고 또한 진지했다는 증거다. 박종평의 추론처럼 나라의 안위를 염려하고 적을 무찌르는데 최선을 다하는 일념과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과 어머니와 아내, 아들들을 염려하는 인간적인 자애심이 그의 꿈과 해석에 반영되었으며 개인의 영달이나 사리사욕은 그의 관심 밖이었다는 사실에 나도 동의한다.

## 2. 꿈 기술의 양적 시간적 분포

이순신의 전체 꿈기록은 42개로 《난중일기》이외의 문헌에서 나온 세 개의 꿈이 포함되어 있다.<sup>38)</sup>

꿈의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꿈을 꾸 사실만 언급했거나 ‘상서로운 꿈’이라든가 ‘어지러운 꿈’이라는 등 감정적 반응만 기록한 7건을 제외하면 해석 대상이 된 꿈은 총 35개이다.

꿈의 기록이 언제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인간은 꿈을 꾸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꿈 기록의 시간적 분포를 보면 꿈을 꾸 당시의 환경조건과 꿈꾼 사람의 의식태도와 관련성을 생각하게 된다.

이순신의 연도별 꿈 기록의 분포를 보면 1592년 1월부터 임진왜란이 시작된 4월 13일 이전까지는 전혀 꿈 기록이 없다가 5월 28일에 중요한 꿈이 보고되고 있고 1593년에는 7월말과 8월에 세 번 꿈 기록이 있는데 8월 15일 이순신이

37) 팽창(Inflation): 원형상의 강력한 영향력에 의해 자아가 팽창된 상태, 자아가 신경과 동일시하는 현상. 이부영 (2021):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③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pp150-158 <자기인식과 자아팽창의 위험성> 참조.

38) 행록《行錄》에서 발견된 세 사례, 그것이 이순신이 직접 꾸 꿈인데 다른 사람이 수식한 것인지는 알수 없다. 그러나 이를 소개한 저자의 고증을 믿고 고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박종평 (2013): 앞의 논문 참조.



삼도수군통제사로 피임된 것과 이에 대한 무의식의 배열(constellation)과 관계가 있을 듯하다. 1594년에는 2월초에 두 개의 꿈이 기술되고 7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8건의 꿈이 기술되고 있다. 이 시기는 2차 당항포해전, 장문포해전, 영동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두던 때였다. 꿈은 1595년 1월과 2월에 각각 1개, 5월 15일에 몹시 산란한 꿈이 보고되고 있다. 이 시기도 많은 해전을 치루어 승전하던 시기였다. 1596년 1월 12일에 한 건, 6월과 7월에 도합 4개의 꿈이 언급된다. 원균의 무고는 11월인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미지수다. 1597년에는 가장 많은 18개의 꿈 기술이 발견된다. 1596년말과 1597년은 이순신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1596년 11월 원균이 무고하여 1597년 2월 중죄인의 낙인 하에 서울에 압송투옥되었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4월에 백의종군하였고 같은 해 같은 달에 어머니의 죽음, 10월에는 셋째 아들 먼이 전사했다. 8월 3일 3도수군 통제사로 재임명되어 활약하였으나 어머니의 장례를 죄인의 몸으로 손수 치르지 못하는데 대한 죄책감과 아들의 전사에 대한 슬픔은 이순신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듯하다. 1598년엔 2월에 꿈 기록 하나뿐이었다(표 1).

꿈 기록이 전체적으로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 인상을 준다. 또한 1597년에 엄청나게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무의식이 활성화되어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 경우인데 무의식의 활성화는 꿈꾸는 사람의 자아의식이 긴급한 상황에서 무의식의 메시지를 갈구하며 꿈에 주목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무의식에 대한 의식적 주목은 무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둘째, 일상에서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여 무의식에 많은 것이 억압되어 있을 때, 혹은 의식에 부족한 것이 무의식에서 과보상될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의식 자체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긴급히 어떤 것을 의식화하도록 추구할 필요가 있을 때

표 1. 꿈 기록의 연대별 분포(\*\*상서로운, "매우 어지러움", "몹시 심란", "꿈속에서 땀을 흘렸다", "삼경후에 꿈을 꾸었다"등으로만 표현된 경우)

---

1592 - 5.29☆, 8. 27* (2)
1593 - 7.29, 8.1, 8.25 (3)
1594 - 2.3, 2.5, 7.27, 8.2, 9.16, (1593/94 (날짜 미상☆) 9.20, 10.10*, 10.14, 11.8, 11.25(10)
1595 - 1.12, 2.9, 5.15* (3)
1596 - 1.12, 6.3, 7.10, 7.28*, 7.30 (5)
1597 - 4.11*, 5.5*, 5.6, 5.8, 6.21, 6.28*, 7.6, 7.7, 7.14, 8.2, 9.13, 9.15, 10.13, 10.14, 10.18, 10.19, 11.7, 11.8 (18)
1598 - 2월 (1)☆

---

☆: 출처 <<행록>>

무의식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때 인상적인 꿈들이 산출된다. 이순신의 꿈 기록의 증감은 이상 모든 요인과 관계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정신적 고뇌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보겠으나 그는 꿈에서 고뇌의 해결을 기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는 꿈을 뭔가 잘 알 수는 없으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천天)의 고지(告知)라고 보았음에 틀림없다.

꿈을 꾸 사람과 대화할 수 없는데다가 당시의 현실상황, 꿈꾸기 전의 의식상태와 경험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순신의 꿈 기록의 빈도와 시대상황, 개인적 체험과의 관련을 명확하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꿈의 기록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데는 꿈 자체가 주는 무의식에 대한 자극도 기여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꿈의 내용이 지닌 '뜻'이며 이순신이 꿈에서 고통의 표현 못지않게 고통의 극복과 해결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찰하고자하는 이순신의 꿈은 평화 시의 어느 스님이나 선비의 꿈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엄청난 재앙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과 싸워온 한 장수의 일기 기록된 꿈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왜적의 격멸은 장수의 지상 임무였던 만큼 꿈의 내용이나 꿈에 대한 이순신의 해석이 주로 사적인 욕구보다 호국, 충의의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의 꿈은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또한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가?

### 3. 개별적인 꿈에 대한 해석과 고찰

처음부터 꿈 기록을 여러 범주로 분류하지 않은 채 각각의 꿈을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고 그 뒤에 전체적 관련을 고찰하고자 한다. 박종평은 첫 꿈을 《행록》에서 뽑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내용이 매우 심상치 않은 꿈인데 어쩌다가 《난중일기》에서 빠졌는지 궁금한 상태에서 본 연구의 첫 꿈에 포함시켰다.

#### 신의 고지(告知):

《난중일기》에는 1592년 1월부터 5월 28일까지 꿈에 관한 기록이 없다. 이 시기에 전라좌수사로 내려간 이순신은 왜적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 알고 전라좌수영의 군비를 점검하고 새로 건조된 거북선의 총포시험, 방비점검, 군율확립, 전략연구등 공무를 차근차근 수행하고 있었다. 1592년 4월 13일 왜군이 부산을 통해 침공한 뒤 4월 15일 경상우수사 원균의 보고를 받고 출전 준비하고

1952년 5월 4일 경상도로 첫 출전했고 5월 7일 옥포해전에서 승리, 5월 29일 사천해전에서 승리했으나 왼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 《행록》에 기재된 다음 꿈은 5월 29일, 즉 사천해전 당일의 꿈으로 이순신이 왜적과 싸우기 시작한 5월 4일과 7일 약 3주 뒤의 꿈이다.<sup>39)</sup>

〈꿈 1592. 5. 29〉

어떤 백발노인이 공을 발로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 적이 왔다.’는 꿈을 꾸었다.<sup>40)</sup>

어떤 신비한 존재가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알려주거나 어떤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꿈꾼 사람이 무엇을 깨닫게 되는 꿈은 역사적 문헌뿐 아니라 종교체험, 특히 성소(聖召)체험에서 보편적으로 보고되어온 꿈의 전형적 사례이다. ‘신비한 존재’는 대개 신격으로 나타나며 ‘백발노인’도 그런 신비한 존재 중 하나이고 때론 그것이 죽은 조상의 혼령일 수도 있다. 또한 전혀 미천해 보이는 존재일 수도 있다. 왜관과의 싸움에 관한 한, 이순신은 꿈의 정보를 존중하였고 꿈이 제시하는 뜻을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계사년(1593) 8월 25일 꿈에 적의 형상이 보이자 이순신은 새벽에 각 도의 대장에게 알려져 바다로 나가 진을 치게 하였다.<sup>41)</sup> 정유년(1597) 9월 15일 꿈은 “신인(神人)이 나타나 가르쳐주기를 이렇게 하면 크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게 된다”<sup>42)</sup>고 하였다. “꿈은 감추지 않는다. 가르쳐 준다.”고 한 용의 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누가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자기’(Selbst)라 부르는 무의식의 핵 요소인 절대지(絕對知, Das absolute Wissen)에서 나온다.<sup>43)</sup> 꿈은 ‘자기’의 의도를 상징적으

39) 박혜일, 최희동, 배영덕, 김명섭 (2016): 《이순신의 일기, 난중일기(개정증보판)》, 시와 진실, 서울, pp11-15.

40) 박종평 (2013): 앞의 논문 p125. 해당 페이지에서 박종평은 이순신이 이 꿈을 꾸고 ‘장수를 거느리고 노랑 해상에 이르니 적이 과연 와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이날 출전했으니 꿈은 5월 28일에 꾸었을 것이라고 했다. 박혜일 등 (2016): 위의 책, p99 참조. 그런데 1592년 5월 29일 향한 곳은 노랑이지만 전투는 사천선창에서 벌어졌다.

41)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증보교감완역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서울, p164.

42)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79(1597. 9.15 꿈).

43)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앎, 용은 그것이 무의식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았고, 인과율이 아닌 비인과적 원리에 따라 동시성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제3판)》, 일조각, 서울, 제 9장, 〈비인과적 동시성이론과 심성연구의 미래〉 참조. C.G. Jung. 동시성에 관하여, Jung CG, 한국융연구원 C. 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1): C. G. 융 기본 저작집 제 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pp368-382.

로 표현한다. 이순신은 상징적으로 ‘신’의 제자였고 이에 걸맞게 ‘신의 소리’(vox Dei)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행록》에 실린 이순신의 이 꿈이 다른 사람이 지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이순신에 대한 위의 평가에 변함이 없다.

이 밖에도 1959년 8월 27일 꿈자리가 어지러웠다고 했고 8월 28일에는 새벽에 앉아 꿈을 기억해보니 ‘처음에는 흥한 것 같았는데 도리어 길(吉)한 것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순신이 꿈의 길, 흥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지러운 꿈이 현실상황과 어떤 관계인지는 알 길이 없다.<sup>44)</sup>

### 아이:

〈꿈 1593. 7. 29〉

꿈에 사내아이를 얻었는데 포로가 되었던 아이를 얻을 징조다.<sup>45)</sup>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꿈을 꾸 사람의 설명이 필요한 꿈이다. 이순신은 이를 포로가 되었던 아이를 얻을 징조라고 하였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법한 일이다. 당대의 사람들처럼 이순신도 꿈에서 주로 미래의 징조를 찾았고 길이나 흉이나를 구체적 현실과 결부시켜 풀이하고 있었다. 이 꿈의 해석도 그 한 예이다. 포로가 되었던 사내아이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경사스러운 사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현대적 분석심리학적 해석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사내아이’는 ‘구체적인 아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다. 아이가 신화와 종교에서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내아이’는 한 마디로 ‘창조적 씨앗’이며 꿈꾼 사람의 새로운 미래의 남성적 의식이라 할 수 있다. 혹은 아직 대극으로 분열되지 않은 하나인 것, 또한 하나가 되게 하는 잠재력, 그런 의미에서 전체정신, 즉 ‘자기’를 상징할 수 있다.<sup>46)</sup> 현대인 같으면 이런 꿈에 대하여 꿈꾼 사람의 마음의 매우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나타낸다고 볼 것이다. 더구나 포로로 갔던 아이의 귀환을 연상한다면 이순신의 마음속에 그동안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던 미래지향적 리비도가 구속에서 풀려나와 자유롭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새로운 생각’으로 대변될 수 있는 사내아이의 상징적 의미를

44)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85.

45)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158.

46) Jung CG(1951): Zur Psychologie des Kind-archetypus (in) C.G. Jung u K. Kerényi (1951): *Einführung in das Wesen der Mythologie*, Rhein Verlag, Zürich, pp105-250.

받아들이고 실현해야한다는 메시지를 이 꿈이 말해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이에 관한 꿈은 이 밖에도 세 개가 더 있는데 1594년(갑오) 8월 1일, ‘부안의 첩이 아들을 낳았다.’와 같은 해 9월 16일 ‘꿈속에서 아이를 보았는데 경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을 징조였다.’는 내용이다. 첫째 꿈에서 태몽이 아닌가 생각해서 따져보니 맞지 않아서 ‘꿈이지만 내쫓아버렸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어딘가 정도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가차없이 내치는 성향 때문일까. 두 경우 모두 태몽에 대한 한국인의 전통적 관념을 대변하는 해석태도이다. 세 번째 꿈은 1596년 6월 3일의 꿈으로 태어난 지 겨우 대여섯 살 밖에 안된 어린이를 안았다가 도로 내려놓는 꿈이다.<sup>47)</sup> 융 학파의 꿈 해석에서 중요시하는 주관단계의 해석에서는 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동물, 다른 형상들이 모두 꿈꾼 사람의 무의식의 여러 가지 콤플렉스들이라 보고 이를 의식화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 영의정 류성용과의 대화:

〈꿈 1593. 8. 1〉

새벽 꿈에 커다란 대궐에 이르렀는데 모양이 서울인 것 같았으며 기이한 일이 많았다. 영의정 류성용이 와서 절을 하기에 나도 답례절을 하였다. 임금이 피난가신 일에 관하여 이야기가 미치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적의 세력은 이미 종식되었다고 말하였다. 서로 정세를 의논할 즈음 좌우의 사람들이 구름같이 무수히 모여들었다.<sup>48)</sup>

영의정 류성용과 친한 사이라고 하지만 대궐에서 영의정이 먼저 인사를 하지는 않을 듯하다. 영의정과 임금의 피난과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 감정을 포함하여 현실에서도 있을 법한 장면이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다는 것은 꿈의 현실로서 이순신 자신의 막대한 관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적의 세력이 이미 종식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소원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이순신은 지금 전쟁 후의 정황을 의논하고 있는 것일까?

꿈에서 이순신의 꿈자아(dream-ego)<sup>49)</sup>는 영의정보다 약간 우위에 있다. 꿈

47)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369.

48)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159.

49) 꿈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각성 시의 자아의식과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꿈-자아(dream-ego)라 한다.

이 의식에 대해 보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융학파의 입장에서는 이 경우 이순신이 평소 영의정을 너무 높이 평가해온 것은 아닌지 알아볼 것이다. ‘기이한’ 현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도성의 권좌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다. 류성용과는 꿈에서 그 뒤에도 아주 진지하게 시국을 논의하고 있다. 이순신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 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동시에 이순신이 권좌의 중앙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류성용은 이순신의 꿈에 두 번 더 나타나는데 이 꿈과 함께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꿈 1594. 11. 5〉

새벽 꿈에 영의정이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고 나는 관을 벗고 있었는데 학제 만 종각의 집으로 가서 함께 이야기하다가 깬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sup>50)</sup>

영의정이 어떻게 이상한 모양이 되었는지를 알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 이순신 자신-꿈의 자아가 관을 벗었다는 것은 관직의 외적 태도-페르조나<sup>51)</sup>-를 벗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들은 사가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한다. 궁궐이니 예의를 차린 인사법이니 하는 것은 모두 배제되어 있다. 이순신의 마음속에서 우국충정의 일념이 형식이나 눈치보기를 떠난 순수한 것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랄까? 물론 현실에서의 영의정과 관계도 더욱 친밀해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내적, 외적 변화는 다음 꿈에서 더욱 뚜렷해진다.

〈꿈 1596. 1. 12〉

새벽 2시쯤 꿈에 어떤 곳에 이르러 영의정(류성용)과 함께 이야기 했다. 잠시 함께 속 아랫도리를 끄르고 앉았다 누웠다 하면서, 서로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을 털어놓다가 끝내는 가슴이 막히어 그만두었다. 이윽고 비바람이 퍼붓는데도 오히려 흠어지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중에 ‘만일 서쪽의 적이 급히 들어오고 남쪽의 적까지 덤비게 된다면 임금이 어디로 다시 가시랴’하고 걱정만 되뇌이며 할 말을 알지 못했다.

50)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253.

51) 페르조나(Persona): 분석심리학에서 '외적 인격'이라 부르는, 집단정신에서 빌려온 사회적 행동규범과 역할. 진정한 자기자신이 되려면 페르조나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제3판)》, 앞의 책, pp96-101.

(앞서 들건대 영의정이 천식으로 몹시 편찮다고 하더니 나왔는지 모르겠다. 글자 점을 던져보았더니, ‘바람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같다.’는 괘가 나왔다. 또 오늘 중으로 길흉 간에 무슨 소식을 듣게 될지를 점쳐보니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은 것과 같다’는 괘가 나왔다. 이 괘는 참 좋다. 참 좋다).<sup>52)</sup>

앞의 꿈들과 비교하여 류성용과 나라일을 걱정하고 의논하는 내용은 같지만 그 배경은 훨씬 개인적인 친밀감으로 일관된다. 속 아랫도리를 끄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둘 사이가 친밀하여 격의가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이 또 두 사람 사이의 관계의 현실이 아니었던가 싶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류성용의 건강을 염려하여 점을 쳐본 것만 보아도 둘의 친분을 알만 하다.

류성용이 누구인가? 이순신의 자질을 일찍이 간파하고 조정에 천거했으며 이순신이 모함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때, 그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한 이순신의 돌도 없는 동시대인, 도반이었다. 꿈속에 나타난 원균이 이순신의 어두운 무의식적 파괴적 그림자라면 류성용은 이순신의 의식의 일부, 혹은 무의식의 긍정적 분신, 긍정적 그림자라고 부를 만한 비중을 가진 존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두 꿈에 나타난 류성용의 이미지는 현실의 인물과 관계되는 동시에 상징적으로 이순신 자신의 무의식에 있는 정치가, 행정가, 일종의 정치적 조절자의 능력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는 장수 자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정치외교가로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그의 꿈이 조금씩 암시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선조가 이순신 사후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정조가 영의정을 중직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지(告知)의 성격을 지닌 꿈들과 이순신의 우국충정과 관련된, 류성용에 관한 꿈들, 그리고 어린이 꿈에 관해 언급하였다. 다시 1594년 초로 되돌아가자.

앞에서 말한 대로 1594년은 꿈 기술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해였다. 꿈은 7월 이후 11월 사이와 2월에 집중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먼저 2월의 두 개의 꿈을 보기로 한다.

52)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p334-335.



### 눈먼 말-첫 번째 경고:

〈꿈 1594. 2. 3〉

꿈에 눈 하나 먼 말을 보았다.<sup>53)</sup>

말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운반 수단이다. 그런 말이 외눈이라면 그 말은 쓸모가 없다. 이것은 경고하는 꿈으로 보인다. 눈이 둘인 것은 세상의 양면을 골고루 넓게 볼 수 있게 함이다. 외눈으로는 그럴 수 없다. 한편에 치우친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말은 본능을 상징하는 만큼 이 꿈은 꿈꾼 이에게 본능적 지각이 협소해져서 사물의 전체를 보기 어렵게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순신이 이것을 감지했는지 알 수 없다. 영웅도 때로는 실수를 하는 법.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변환의 상징에서 용은 말과 기사 사이의 유사성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말과 기사들 사이에는 같은 운명으로 인도하는 내적인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 같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를 목표로 향하는 리비도는 후자(어머니)자체가 말로 상징화됨을 보았다. 모성상은 리비도 상징이고 말 또한 그러하다. 그리고 몇 가지 점에서 이 두 상징은 개념상의 교차라는 방식으로 서로 만난다. 두 심상의 공통점은 리비도에 있다.<sup>54)</sup>

또한 용은 영웅과 그의 말은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동물적 충동영역을 거느린 인간이라는 관념을 나타낸다고 말했다.<sup>55)</sup>

이 꿈은 꿈꾼 사람의 무의식의 모성본능에 문제가 생겼음을 가리켜주고 있다. 모성본능은 ‘몸을 보살피는 마음’이기도 하다. 어머니는 상징적으로 대지와 같은 질료(materie)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몸에 어떤 불균형이 생겼음을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이순신은 몸이 튼튼한 편이 아니고 자주 아팠다. 전투를 통해 몸을 혹사하기도 했고 가끔 과음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눈은 매우 풍부한 상징을 지닌 심상이다. 유럽의 성당 천정에는 눈 한 개가 그

53)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186.

54) Jung CG (1952): *Symbole der Wandlungm*, Rascher-Verlag, Zürich, pp470-471.

55) Jung CG (1952): 위의 책, p471.

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하늘로 향한 창이며 세계의 중심을 의미한다. 눈 하나 달린 파괴적인 괴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영원한 신의 통찰하는 눈이기도 하다.<sup>56)</sup> 그러나 이순신의 말은 처음부터 외눈이 아니고 둘 중 한 눈이 멀었다는 점에서 ‘결손’을 경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말은 또한 영혼의 인도자(psychopompos), 아니마 원형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인도자의 한 눈이 멀었다면 어떻게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영웅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꿈이다.

그러나 그런 경고는 잠시 뿐이었던지 이틀 뒤의 꿈에서는 좋은 말을 타고 가는 경험을 한다.

### 산마루와 여인:

〈꿈 1594. 2. 5〉

새벽 꿈, 좋은 말을 타고 바위가 첩첩한 큰 산마루에 곧바로 올라가서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동서로 뻗어있고 또 산봉우리 위에 평평한 곳이 있어서 거기다 자리를 잡으려다 깨었는데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 한 미인이 혼자 앉아 손짓을 하는데 나는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으니 우습다.<sup>57)</sup>

이 꿈은 세부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의 평화로운 정경으로 공감하는데 머무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꿈은 전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명산을 두루 관람하고 발아래 펼쳐진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 한 다정다감한 장수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꿈속에서 이순신은 산마루의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더 여유있게 산의 정기를 호흡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것은 미인이 혼자 앉아 손짓하듯 ‘유혹적’이다.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나 그는 여인의 소매를 뿌리친다. 오래 그 자리에 머무를 수는 없을 것 같다. 규율에 철저한 군인의 페르조나가 미인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의식

56) 북유럽 신화의 주신, 오딘(보탄)은 샘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 한쪽 눈을 잃었다. 그런가하면 외눈박이 괴물에 관한 신화가 널리 분포되어 있다.

Simek R (1995): *Lexikon der germanischen Mythologie*, Alfred Körner Verlag, Stuttgart, pp302-315.

Peterich E (1955): *Götter und Helden der Germanen*, Walter Verlag, Olten, p34.

Cooper J (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and Hudson, London, p62.

57)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187.

은 그 치열한 전쟁의 한 가운데서 그에게 호연지기를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었다. 산에 올라 아름다운 산봉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감격을 상상해 보라, 우리가 정신의 전체와 하나된 감흥이 그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분석심리학에서 자아가 자기원형상에 접촉할 때 느끼는 감동이라 설명한다. 실제로 산은 상징적으로 하늘에 맞닿은 신성한 곳, 신들이 사는 곳으로 자기원형상의 하나로 경험된다. 그리고 이순신의 꿈 자아에게 손짓한 저 미인은 비천한 성적인 유혹자가 아닐 수 있다. 아마도 그것은 선녀와 같은 존재로 이순신의 무의식 세계에 존재하는 아니마상이라 볼 수 있다.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오직 모든 에너지를 적을 공격, 또는 방어하는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사사로운 본능적 욕구는 모두 억제되어야 한다. 미인은 더욱 조심해야 했을 것이다. 이를 두고 아니마와의 관계가 ‘미숙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데 이순신은 엄격한 군율 속에서도 장병들에게 때때로 놀이와 시합을 시키고 억압된 에로스를 여러 다른 방법으로 발산하도록 한 것 같다.

《난중일기》를 보면, 옛날 전쟁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었던가 싶을 정도로 한가해 보이는 시간이 있었다. 이순신이 바둑을 두거나 활을 쏘는 것 이외에 피리를 불게 하거나 거문고를 뜯게 하며 시를 읊기도 했다. 이를 통하여 이순신의 아니마는 표현되고 체험되었다. ‘소매를 뿌리치고 응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습다’는 반응을 한 것은 특이하다. 여인의 그 행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1594년 7월 27일 밤 머리를 풀고 곡을 한 꿈을 ‘매우 길한 조짐이라고 한다’고 해석한 것<sup>58)</sup>은 주목을 요한다. 보통 사람들은 꿈속에서 비탄을 경험하고 깨고 나서도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인짱아하는 법이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꿈의 해석법은 아마도 당대에 통용되던 해몽법에 모든 것은 변하고 최악으로 보이는 것도 반대극으로의 변환을 암시한다는 주역의 대극관이 반영된 탓이 아닐까 짐작된다. 8월과 9월의 아이 꿈에 관해서는 이미 살펴보았다. 1594년 9월 20일 우리는 매우 신기한 꿈을 만나게 된다.

### 섬이 달려오다:

〈꿈 1594. 9. 20〉

홀로 앉아 간밤의 꿈을 새겨보니 바다에 있던 외딴 섬이 달려 가다가 내 눈 앞

58)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242.

에 와서 멈춰 서는데 그 소리가 우뢰와 같아 사방이 놀라 달아나고 나만이 홀로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구경하였다. 참으로 기뻐다.<sup>59)</sup>

이순신은 이 꿈에 대해 말하기를 “이것은 왜놈이 화친을 애걸하고 스스로 멸망할 징조”라고 했다. 또한 말하기를 내가 준마를 타고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임금의 부르심을 받아 올라갈 징조다.

외딴 섬이 달려가다 꿈의 자아 앞에 멈춰 서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커서 다들 달아나고 오직 꿈 자아만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줄거리는 결코 평범한 꿈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마치 이순신에게만 보여주는 일종의 ‘계시’, 무의식의 깊은 곳에서 알려진 사실, 그 사건은 엄청난 놀람과 함께 진행된다는 것, 오직 용기있는 자만이 그 사건을 지켜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사건을 즉시 왜군의 투항과 멸망에 결부시킨 이순신의 해석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섬이 이순신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섬에 진영을 만들고 섬과 섬 사이를 누비며 전투를 벌였고 섬에 숨어든 적선을 찾아 잡아내던 이순신에게 섬은 현대의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순신에게 꿈에서 본 섬은 일본열도, 왜군의 근거지로 보였을지 모른다. 그래서 섬을 투항하는 왜군이라고 보고 기뻐한 이순신의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현대의 분석심리학에서는 꿈에 나타난 섬 그 자체의 상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 섬의 상징:

섬은 창조신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태초의 혼돈의 바다에 흙덩이 같은 것이 생겨 하늘과 땅이 구별된다는 이야기다.<sup>60)</sup> 우리나라 옛 이야기에는 허기진 거인이 돌, 흙, 나무 등을 닥치는 대로 먹다가 배탈이 나서 토사를 일으켜 그것이 흘러 태백산맥이 되었고 그때 똥덩이가 튀어나와 제주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sup>61)</sup> 제주도에는 선문대할망이라는 거대한 노파가 있었는데 오줌의 거센 줄기가 육지를 떼어 섬을 만들었고 그것이 현재의 소섬이라는 이야기가 있다.<sup>62)</sup>

태초의 세계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혼돈이었다. 일본과 같은 섬나라들의

59)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같은 쪽.

60) Von Franz ML, 김현진(역) (2019): 《창조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참조.

61)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p418.

62) 현용준 (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일산, p30.

창세신화는 이 혼돈에서 시작된다. 흙탕물에 기름처럼 떠 있는 어떤 것을 창으로 휘저어서 창끝에서 떨어진 소금이 굳어서 땅이 되기도 하고,<sup>63)</sup> 몽고어족인 칼미크족의 신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철봉으로 원초의 바다를 휘젓자 액체의 일부가 굳어져 대지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sup>64)</sup> 섬을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시키는 섬 만들기 주제 또한 일본 신화에서 흔히 발견된다. 이것은 아마도 해양민족에 보편적인 주제일 것이다.<sup>65)</sup>

창세신화에 혼돈상태에서 흙이 뭉쳐 단단한 대지를 만드는 과정은 상징적으로 무의식에서 최초로 의식이 싹트고 강화되는 심적 과정을 의미한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은 광대한 무의식 가운데 있는 작은 의식세계에 비유된다. 무의식의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피난처로 때로는 신경증 환자가 의지하는 ‘행복한 신경증적 섬(Happy neurotic island)’이 되기도 한다.<sup>66)</sup> 섬은 한편으로는 고립된 곳, 유배지, 죽은 자의 터, 혹은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괴물, 여괴들의 서식지로, 다른 한 편으로는 도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선들이 사는 세계, 이상향, 축복된 땅으로 양면성을 지닌 심상이다.<sup>67)</sup>

C.G. 융은 연금술의 ‘현자의 나무’를 연구하는 가운데 나무가 자라는 섬의 그림을 소개하고 그 초개인적 원초적 상징을 시사하였다. 이 경우 섬은 생명의 나무의 토대를 의미한다.<sup>68)</sup> 그것은 곧 다름 아닌 자기상이다.

이순신의 꿈에 나타난 섬은 ‘달려온다’. 움직이는 섬을 중심으로 한 확충이 필요해진다. 신화, 민담에서 섬 이동 주제는 보편적인 주제인 듯하다. 해엄치는 섬(Swimming island), 섬끼리 부딪치는 스킨라 카립디스에 관한 그리스 신화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섬이 목적지를 향해가다가 한 여자가 “저기 섬이 간다”고 말하자 섬이 그 자리에 멈추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김기형은 이것이 여성의 경계망동으로 남성의 출세 의지를 방해한다는 여성 천

63) 武田祐吉(역주) (1958): 《古事記》, 角川書店, 東京, p18.

64) 上田正昭 (1970): 《日本神話》, 岩波新書 748, 岩波書店, 東京, p90.

65) 谷川健一 (1999): 《日本の神々》, 岩波新書 618, 岩波書店, 東京, p87.

66) Jung CG (1958): Praxis der Psychotherapie, G.W. Bd.16, par.374, Rascher-Verlag, Zürich und Stuttgart.

67) Cooper J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and Hudson, London, p88,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pp419-421.

68) Jung CG (1954b): *Von den Wurzeln des Bewusstseins*, Rascher Verlag, Zürich, pp354-355.

시 관념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였다.<sup>69)</sup>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 속담처럼 남존여비 사상이 농후하게 반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심층심리학적 견지에서 보면 이것은 약하고 예민한 아니마를 가진 남성과 미분화된 아니무스(여성속의 남성성)에 사로잡힌 여성 사이의 창조과정의 개입을 나타내는 이야기다. 또한 예술가의 창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아니마의 개입을 나타낸다.

섬의 이동은 아직 천지창조가 완성되기 전의 과정으로 무의식의 바다에서 그 의식적 콤플렉스들이 배열되고 결합되면서 의식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을 말한다. 그 과정은 자연의 흐름대로 자유로이 진행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 창조과정에 성급한 의식적 판단이 개입하면 창조과정은 멈춰버린다. 창조과정은 일종의 비의(Mysterium)이다. 의식 저편의 변환과정으로 모든 시인, 작가, 작곡가, 화가들의 창작과정은 아기를 잉태하고 뱃속에서 기르고 드디어 분만하는 여인처럼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객관적인 의식적 판단은 이 내적인 성숙과정을 방해한다. 제주도 비양도 전설은 육지의 이야기와 달라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옛날도 아주 옛날, 섬이 바다 위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때, 비양도가 중국에서 조류를 따라 떠내려 한림 앞바다로 와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때, 바다에서 해초를 캐던 임신한 해녀가 난데없이 떠오르는 섬을 보고 이상히 생각하고 이 섬에 올라가 쉬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았더니 이상하게도 떠 흐르던 섬이 그 자리에 딱 멈추어버렸고 그 후부터 아무리 조류가 세어도 섬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sup>70)</sup>

또 다른 유화는 말한다:

비양도는 본래 육지에 있는 섬이었는데 지금의 자리에 떠 내려온 것이다.—임신한 여인이 큰 섬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야, 저기 섬이 떠온다”라고 소리치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떠 내려오던 섬이 그만 그 자리에 멈추어버렸다는 것이다.<sup>71)</sup>

육지의 섬 이동에 관한 이야기와 제주도의 이야기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69)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2》, 위의 책, p421, p419.

70) 현용준 (1976): 앞의 책, p26.

71) 현용준 (1976): 앞의 책, 같은 쪽.

은 흥미로운 일이다. 똑같이 섬을 멈추었으면서 그 방법이나 그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특히 제주도의 유희는 육지의 이야기와 똑같이 섬이 움직인다는 여인의 지적으로 섬이 멈추었는데 제주도 이야기에서는 그것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좌절이 아니라 방향을 멈추고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주도 이야기에서는 섬을 발견하는 자가 보통 여인이 아니라 ‘임신한 여인’ 또는 ‘임신한 해녀’다. 임신한 여인은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내적으로 창조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 여인이 섬에 올라가 소변을 본다든 것은 창조적 에너지로 ‘축성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방향과 모색은 끝나고 자아의식은 세계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 자체로 창조성을 잉태하고 있는 아니마의 간섭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의식이 제 자리를 찾도록 만들어준다.

이순신의 꿈에 나타난 움직이는 섬은 어떤 섬인가? 이순신의 꿈-자아에게 그 섬은 ‘왜놈이 화친을 청하고 멸망할 징조’였다. 그는 아마 섬나라 왜국의 투항과 멸망을 생각했을 것이다. 장수다운 해석이다. 그 어마어마한 소리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 달아나고 자기만 끝까지 지켜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사건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뜻인가. ‘왜놈의 투항’을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꼭 들어맞는 생각 같지 않다. 꿈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공통점이 있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서 발견된다. 만파식적(萬波息笛)에 대한 옛이야기다.

동해 중에 작은 산이 떠서 감은사로 향하여 오는데 물결을 따라 왕래한다. 왕이 이상히 여겨 일관에게 물으니 문무대왕과 김유신이 바다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왕에게 큰 보배를 주고자 한다. 왕이 이견대로 가서 그때 있는 산(淨山) 섬을 보았다. 사람을 시켜 산세를 살피니 거북모양을 하고 있는데 산 중앙에 신비한 대나무가 있었다. 이 대나무는 낮에는 둘이다가 밤에는 하나가 되는데 오시에 대가 합치어 하나가 될 때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치면서 7일간 어둡더니 그달 16일에야 바람이 멎고 물결이 잔잔해졌다. 왕이 배를 타고 몸소 그 섬으로 가서 용으로부터 그 신비한 대를 받았다. 이 대를 취하여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진다고 한다. 대를 베가지고 섬에서 나오니 산과 용이



홀연히 보이지 않았다.<sup>72)</sup>

이 이야기는 대극 합일의 상징과 그 치유의 원형적 상징으로 매우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원형상의 상징을 목격한다.<sup>73)</sup> 나는 다만 여기서 ‘천지가 진동하고 비바람이 치며 어두워지는 배경’에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이순신은 그 우주적 변환의 소리를 꿈에서 들은 것이다. 꿈-자아는 여기서도 선택된 자이다. 그 소리를 듣고 견딜 수 있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존재로서, 지금껏 낯설고 적대시했던 어떤 무의식적 정신이 자아의식에 수용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 느닷없는 깨우침-돈오(頓悟)라 할까. 그 충격을 범인(凡人)은 감당할 수 없다. 이순신은 그것을 왜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섬이 달리고 앞에 와서 멈추고 그것을 보고 ‘참으로 기뻐다.’는 꿈-자아의 반응은 이것이 굉장한 소득과 관련 있음을 꿈에서 직감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중에 준마를 타고 서서히 가는 것이 임금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였으니 분명 전공에 대한 보상을 염두에 둔 것임에 틀림 없다. 섬을 보편적 상징으로 새로운 외딴 섬, 즉 자아의식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의식영역이 자아 가까이로 달려와 멈추었다는 것은 자아의식의 확장과 강화가 커다란 충격으로 경험되었고 크게 기뻐할 사건일 터이다. 무의식의 의식화과정은 언제나 강력한 감정 반응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달려온 섬을 왜군의 투항과 괴멸이라고 본 이순신의 꿈 해석이 틀렸다고든가 그럴듯하다든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순신에게는 그렇게 보였고 그것은 또한 그에게 무한한 자신감을 가져다주었으리라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 원령의 호소:

박종평이 소개한 《행록》에 기재되었다는 다른 하나의 꿈은 명확한 일시를 모르는 채 1593년, 아니면 1594년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제사지내려는 새벽, 꿈에 한 때의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전쟁과 병으로 죽은 사람은 제사밥을 얻어먹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제사대상에서 빠져서 제사밥을 얻어먹을 수 없다고 호소하는 것이었다. 명

72) 이병도(역주) (1956): 《삼국유사》, 동국문화사, 서울, pp238-240.

73) 이부영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p309-312.

단을 살펴본 즉 실제로 이들이 제사 대상에서 빠져있어 포함시켜서 제사를 잘 지냈다고 한다.<sup>74)</sup>

말할 것도 없이 동서양 고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꿈의 ‘예시적 기능’, 분석심리학적으로 말해서 동시성현상(Synchronicity phenomena)<sup>75)</sup>의 사례이다. 이런 꿈은 주관적 상징적 해석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꿈이 예시적이거나 동시적 현상의 표현은 아님을 유의해야한다.

1594년(갑오) 10월 8일 두 가지 ‘상서로운 꿈’을 꾸 뒤, 10월 14일 다음과 같은 꿈을 기술하였다.

〈꿈 1594. 10. 14〉

새벽 꿈에 왜적들이 항복을 청하면서 육혈총통 5자루와 환포를 바쳤다. 말을 전해준 자는 그 이름이 김서신(金書信)이라 하는데 왜놈들의 항복을 모두 받아드리기로 한 꿈이었다.<sup>76)</sup>

전투 현장에서 장수의 꿈에 나올만한 이야기다. 왜군이 항복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기도 한 상황에서 나온 꿈으로 다른 특별한 상징성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그것을 전해준 사람의 이름이 너무도 분명해서 이에 대한 고증이 필요하다. 이순신은 공격해 들어오는 적은 가차없이 처단했으나 항복하는 자에게는 관대하게 받아드리는 자비로운 장군이었던 것 같다. 포로들이 정월에 자기네 전통 놀이를 하도록 청원하여 이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있다.<sup>77)</sup>

1594년 11월 25일 순변사 이일과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가 위급한 난리를 당한 이때 순변사 이일의 일탈 된 사생활을 격렬히 비판하고 각 고을과 포구에 배치된 주사(舟師)들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항의하는 내용이며 순변사가 말이 막혀 대답을 못 했다는 이야기다. 부도덕한 행태에 대한 평소의 분노를 표현한 꿈으로 특별히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 꿈은 아니라고 본다.

### 부친의 꿈:

1595년에는 1월 12일 부친의 꿈과 2월 9일 용꿈, 5월 16일(15일?) 몹시 산란

74) 박종평 (2013): 앞의 논문, p125.

75) 이부영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p283-313.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제3판)》, 일조각, 서울, pp329-340.

76)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249.

77)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왜적전통놀이.

한 꿈, 3건이 기술되어 있다.

〈꿈 1595. 1. 12(을미)〉

자정에 꿈을 꾸니 부친께서 분부하기를 ‘13일에 아들 회의 혼례를 장가보내는데 알맞지 않은 것 같구나. 비록 4일 뒤에 보내도 무방하다’고 하셨다.<sup>78)</sup>

(이는 완전히 평소 때와 같은 모습이어서 이를 생각하며 홀로 앉아있으니 그 리움에 눈물을 금하기 어려웠다.)

부친이 평소처럼 꿈에 나와서 손자의 혼인 날짜를 약간 늦추기를 권하는 꿈이다. 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나와 이것저것 평소처럼 시키거나 권고하는 꿈은 동서고금에 흔히 있는 사실이다. 그 장면이 너무나 생생해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왔다 갔다고 느끼고 그런 느낌이 미신이라든가, 비과학적 상상이라고 폄하할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 부친의 권고에는 또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 당시 이순신은 무언가 좋은 일을 서둘러 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혼인이란 남성성과 여성성의 합일, 대극 융합의 최고의 상징이다. 전체정신의 실현, 한 마디로 ‘자기’의 상징이다. 불교적 용어로는 일심(一心)이라 할 것이다. 자기완성의 기미가 보이면 사람들은 약간 조급해진다. 꿈에서 부친은 4일만 늦추어도 된다고 조언한다. 13과 4의 수 상징을 참고하면 꿈의 뜻이 더욱 깊어진다. 13은 10과 3의 결합, 전체에서 더 나가 3, 남성적 역동성의 결합이다. 4는 짝수, 여성성, 음 학파에서는 전체정신의 상징이다. 이것으로 ‘해탈’의 직전에 고려해야 할 ‘기다림’의 여유를 가르쳐준 것이다. 무의식의 이러한 메시지는 이순신의 부친의 모습을 한 무의식의 심혼에 의해 전달된다.<sup>79)</sup>

### 용 꿈:

1595년(을미) 2월 이순신은 엄청난 꿈을 꾸다. 이순신도 이 꿈이 ‘기이하고 상서로움이 많은 것 같아서 적는다’고 했다.

78)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p268-269.

79) 무조무가(巫祖巫歌)의 하나인 「바리공주」에는 왕(또는 대왕)은 왕자(손)를 보고자 하는 성급한 마음에 점술관이 권고한 날짜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둘다가 왕자(손) 아닌 왕녀를 낳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부영 (2012):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서울, pp468-469, 赤松智城, 秋葉隆 (1937):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大阪, pp3-60.

〈1595(을미)년 2월 9일〉

서남방 사이에 붉고 푸른 용이 한쪽에 걸렸는데, 그 형상이 굽어 있었다. 내가 홀로 보다가 이를 가리키며 남들도 보게 했지만 남들은 볼 수 없었다. 머리를 돌린 사이에 벽 사이로 들어와 화려한 용이 되어 있었고, 내가 한참 동안 어루만지며 구경하는데 그 빛과 형상의 움직임이 특이했고 웅장하다고 할만 했다.<sup>80)</sup>

용은 서남방에서 나왔다. 서방도 아니고 남방도 아닌 중간지대에서.- 서방은 해지는 곳, 서방정토를 연상케하는 인생의 완성, 지혜로운 깨달음의 종점이다. 남방은 따뜻한 곳, 풍요로운 모성적 땅. 이순신이 진을 치고 있던 전라도 지방은 조선반도의 서남방에 있다는 사실과 결부시키는 것은 지나친 일인지 모른다.

용은 처음에는 굽어 있고 멀리에 보이다가 벽 사이로 들어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것은 이순신의 눈에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한다. 이순신-꿈자이는 용을 만지면서 그 장려함에 감탄한다. 그것은 이순신의 용이었다. ‘이순신’(의 꿈-자아)은 용과 하나가 된다. 둘 사이에 아무런 알력도 없다. 대체 꿈에서 용과 두려움 없이 노닐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붉고 푸른 용이 별개의 두 마리 용인지 한 마리의 두 색채를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청색과 적색은 색채상징 상 대극에 속하고 두 색깔의 용이 함께 혹은 하나 속에 어울려있다면 이 또한 대극합일의 전체상을 나타낸다.

한국전통 관념에 따르면 용은 무엇보다 ‘왕’의 표상이었다. 용안, 용상, 용포 등 왕이 곧 용이다. 그리고 천자,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이다. 이순신이 살던 시대의 일반적 관념에 따른다면 이 꿈은 이순신이 왕이 된 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 자신은 이 꿈이 상서로운 기억할만한 꿈이라고 기뻐했지만 자기가 임금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상상은 추호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무의식은 그가 현실의 임금을 능가하는 진정한 왕자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명 수군 사령관 진린이 선조에게 하였다는 말이 생각난다: “이순신은 천하를 다스릴만한 재주와 세운을 만회한 공로가 있다”고 그를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다.<sup>81)</sup>

이순신이 천하를 다스릴 위인이었기에 그는 대도(大道)보다도 파당의 이익

80)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p272-273.

81) 노승석 (2007): “충무공의 전사에 대한 문헌적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8,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p12에서 재인용.

에 매달려있는 소인배들의 집요한 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순신에게는 나라와 백성이 지켜야 할 대도였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일이 아닌 것은 왕의 요구라 할지라도 듣지 않았다. 그것이 또한 왕을 위한 일이었다. 꿈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그는 남이 못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일개 첩자의 속임수에 왕까지 농락된 군사정보의 거짓임을 꿰뚫어보았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용과 노니는 장수가 아니고서야 어찌 그리 확고한 신념을 관철할 수 있었겠는가?

1595년 5월 15일에는 새벽꿈이 몹시 심란했다고 했고 그 이후 그해 말까지 꿈 기록이 없다.

1596년 1월 류성용과 이야기하는 꿈, 7월 30일에도 꿈에서 영의정과 이야기하고 6월 3일에는 5, 6세 아이를 안았다 내려놓는 꿈, 7월 28일 꿈속에서 땀을 흘렸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7월 19일 멀리 화살을 쏘고 갓을 부수는 꿈을 기록했는데 잠시 이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꿈 1596. 7. 10〉

새벽꿈에 어떤 사람이 멀리 화살을 쏘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갓을 발로 차서 부수는 것이었다. (이순신의 말: “스스로 이것을 짐쳐보니 “화살을 멀리 쏜 것”은 적들이 멀리 도망하는 것이요, 또 ‘갓’을 발로 차서 부순 것은 갓이 머리에 써야 할 것이나 발로 걷어 채인 것이니, 이는 적의 괴수에 대한 것으로서 왜적을 모조리 무찌를 징조라 하겠다.”)<sup>82)</sup>

이순신의 해석은 심리적 해석이기보다 대부분의 경우처럼 소원성취를 바탕으로 한 ‘연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꿈의 뜻이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다. 꿈에 대한 꿈꾼 사람의 더 많은 연상이 필요하다.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순신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성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화살을 멀리 쏘는 사람’ 다른 하나는 갓을 발로 차 부수는 사람, -두 사람이 다 이순신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이다. 반드시 대극적인 것은 아닌 듯하다. 하나는 분명 전투와 관계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순신은 이를 적의 두목의 샷갓을 발로 차는 연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좁은 견해같아 보인다. 화살을 멀리 쏘다함은 목표를 먼

82)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375.

곳에 둥이고 샷갓은(누구의 것인지 모르나) 가까이에 항상 머리에 쓰고 다니는 그 사람의 신분, 관직, 즉 페로조나에 해당되며<sup>83)</sup> 꿈에서는 이것을 벗어던지고 발로 차서 부순다고 하는데 이는 상징적으로 페르조나(유교문화와 직접 관련된 체면, 사회관습)를 집어던지고 발로 쳐부수는 성향을 가리킨다. 누구의 샷갓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꿈은 먼 곳을 보는 이순신의 형안과 세상의 집단구범을 과감하게 타파하려는 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1597년은 이순신에게 최악의 해이자 동시에 영광의 해였다. 1596년 11월 원균의 무고로 왕의 불신을 산 그는 중죄인의 누명을 쓰고 1597년 2월 서울로 압송되고 3월에 투옥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한 채 풀려났으나 4월1일 백의종군의 치욕적인 명에가 씌워졌고 어머니의 장례도 제대로 치루지 못한 한을 안고 참전해야 했다. 꿈은 4월 11일 매우 심란했다는 기술 뒤 5월부터 11월까지 매달 2-4개씩 보고하고 있다. 원균은 7월 16일 칠천량 전투에서 패배하고 죽었고 이순신은 8월에 다시 3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 명량해전에서 대승하는 등, 전과를 올리며 명예를 회복하였으나 10월에 아들 면을 전투에서 잃는 깊은 슬픔을 겪어야 했다. 《난중일기》 4월 11일 그는 어머니의 병환을 근심하며 백의종군할 때인데 “새벽꿈이 매우 번거로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썼다. 어머니 병이 위급함을 예감한 탓일까? 꿈의 내용이 이와 관련 있으리라 짐작된다. 꿈을 덕이와 올에게 말했다고 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마음이 더없이 심란하여 취한 것도 같고 미친 듯도 하여 마음을 가눌 수가 없으니 “이 무슨 징조인가?—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한탄한다.<sup>84)</sup>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의 일기는 더욱 처절하다.<sup>85)</sup>

이때도 새벽꿈이 매우 어지러웠다고 기술하고 있다. 사실 심리학적 연구에서

83) 민족문화대백과에서 갓은 ‘조선시대 사대부의 대표적인 관모의 하나’라고 소개되어 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가운데 다음 서술이 눈에 띈다:

“의례를 가장 중요시했던 조선시대 남자들의 대사회적 용도로 사용했던 갓은 위엄과 체모를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갓에 얽힌 여러 이야기는 물론, 해학적이며 풍자적인 속담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기도, p318.

84)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08.

85) “이날은 단오절인데 천 리 밖에 멀리 와서 종군하며 장례도 못 모시고, 곡하고 우는 일조차 뜻대로 맞추지 못하니, 무슨 죄와 허물이 있어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나와 같은 사정은 고금을 통하여 그 짝이 없을 것이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고, 아프다. 다만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이다.”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15.

보면 이와 같이 감정적으로 혼란과 고통의 와중에 휩쓸렸을 때일수록 무의식에서 질서를 되찾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법이다. 현대 같으면 무의식에 집중하라고 권했을 것이다. 이순신의 고뇌는 꿈에 집중할 여유가 없었을 것 같다.

1597년 5월 6일 드디어 위로하는 자가 꿈에 나타났다. 두 형님이었다.

〈꿈 1597. 5. 6〉

꿈에 돌아가신 두 형님을 보았는데 서로 부축하시고 통곡하며 하시는 말씀이 ‘장사일을 치르지도 않고 천 리를 종군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일을 주관하며 통곡한들 어찌하느냐’고 하셨다.<sup>86)</sup>

이순신은 말한다. ‘이는 두 형님의 혼령이 천 리 길을 따라오신 것’이라고, 그들은 동생과 함께 애도를 하려고 나타났다. 주관단계 해석에서 두 형님을 이순신 자신의 무의식적 분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영혼이 따라서 내려왔다’는 설명이 더 진실을 묘사한다고 보겠다. 이들이 함께 애도할 뿐 아니라 ‘남원의 추수 감독하는 일’을 염려한 것은 이순신이 애도하는 나머지 소홀히 하고 있는 현실적 과제를 지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5월은 가을이 아니다. 추수(秋收)는 죽음과 관련된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고 삶의 완성이라는 용의 사생관이 생각난다. 상징적으로 보아 잃은 현실의 어머니를 그리워하지 말고 어머니 대지가 산출한 풍요로운 양식을 거두는 일에 주목하라는 말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순신의 비탄은 극에 달해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에게 효(孝)를 다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자책감과 회한이었다. 앞에서 열거했듯이 5월 6일의 일기에서 이순신은 통곡한다: “아득한 저 하늘은 어찌 내 사정을 살펴주지 못 하시고, 왜 빨리 죽지 않는가(天胡漠漠 不我獨夸不造死也) (1597. 5. 6).<sup>87)</sup>

이렇게 비탄에 빠진 날 이틀 뒤에 이순신은 특이한 꿈을 꾸었다.

〈꿈 1597. 5. 8〉

“이날 새벽 꿈에서 사나운 호랑이를 때려죽이고 껍질을 벗겨 휘돌렸는데, 이 무슨 징조인지를 모르겠다.”<sup>88)</sup>

86)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174.

87)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위의 책, 같은 쪽.

88)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17.



이 꿈에서 이순신은 통곡하고 슬퍼하는 상주가 아니다. 호랑이는 한국인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 강력한 힘은 장수와 군인의 표상이 되었고 신성한 짐승으로 산신(山神)으로 모셔졌으며 다른 한편 이순신의 시대에는 더욱 그 해악이 실제로 심하여 사람과 가축을 해하는 악한 짐승이었을 것이다. 이 꿈의 호랑이는 오히려 무의식이 그와 같은 부정적 파괴력을 상징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해와 달》이라는 우리나라 민담에서 호랑이는 빛(의식성)의 출현을 억압하려는 세력으로 분석심리학적 용어로 부정적 아니무스(negative animus)로 간주된다.<sup>89)</sup> ‘사나운 호랑이’란 이순신의 무의식에서 거칠게 자기학대를 일삼던 본능적 충동으로 그것을 때려죽였다 함은 그런 파괴적 영향을 철저하게 제압한다는 것이며 가축을 벗겨서 혼든다 함은 파괴적 충동에서 긍정적 충동을 분리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오직 영웅만이 그 일을 할 수 있고 이순신이 바로 이 과제를 해야 할 영웅이라고 꿈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순신은 그 뜻을 몰랐다. 자기가 영웅임을.

이와 같은 무의식적 내용의 배열과 강한 정감반응이 이순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일기만으로는 알 수 없다. 원균의 모략에 관한 불쾌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호랑이 꿈을 꾸 날 원균의 조문을 받았으나 그 진의를 의심한다. 5월 12일에는 원균에 관한 점을 치기도 했다. 크게 흉한 괘가 나왔다고 한다.

6월 21일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는 꿈(새벽에 덕(德)과 울온(栗溫)을 꿈꾸었고 대(臺)도 함께 봄, 반갑게 인사하는 빛이 역력했다).<sup>90)</sup>

6월 28일 새벽꿈이 어지러웠다고 했고 7월 6일 운삼방을 만나 나주로 귀양

89) ‘부정적 아니무스’(negative animus)는 이부영 (2011): 《분석심리학(제3판)》, 일조각, 서울, pp101-113. 이부영 (2021):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② 《아니마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pp63-102. 이부영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p131-137(호랑이의 의미).

모성성의 부정적 파괴적 충동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자기연민, 자책으로 표현된다. 꿈꾸 무렵의 이순신의 의식상황이 그러하지 않았나 짐작되고 수 많은 신화적 영웅이 괴물을 처치하는 모험을 감행해 왔듯이-. Campbell J (1968):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Univ. Press, New Jersey. p30ff, Peterich E (1958): *Götter und Helden der Griechen*, Walter-Verlag, Olten, p78, p34f, p91f, Rönau E (1925): *Helden von Hellas*, Artur Wolf Verlag, Wien.

90)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위의 책, p434.

간다고 말하는 꿈,<sup>91)</sup> 다음 날 7월 7일 드디어 이순신이 그토록 괴롭힘을 받은 원균이 꿈에 나타났다.

### 꿈에 나타난 ‘원균’:

〈꿈 1597. 7. 7〉

꿈에 원공과 함께 모였는데 내가 원공의 뒷자리에 앉아 음식상을 내을 때 원군이 즐거운 기색을 보이는 것 같았다(그 징조를 잘 모르겠다).<sup>92)</sup>

이 꿈에 대해 이순신은 무슨 징조인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꿈에서 징조를 보고자 하는 한 시야가 좁아져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게 된다. 꿈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꿈에서는 원균과의 오랜 원한이 보이지 않는다.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의 성찬식(communion), 어쩌면 이순신의 그림자로서의 내면과 객관적 존재로서의 외부의 ‘원균’, 양측 사이의 하나의 화해의 장(場)이 보일 뿐이다. 원균이 만족한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활하고 음험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꿈속 이순신이 뒷자리에 앉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원균의 좋은 기분이 그와는 관계없이 음식이 들어오기 때문인가? 알 수 없다. 다만 심리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무의식은 의식을 보상한다’고 볼 때 이순신의 꿈에서 상좌에 앉았다는 사실이 현실의 의식적 관계의 보상이라면 이순신의 의식의 태도는 오히려 원균보다 아랫자리에, 즉, 피해자같이 위축된 구석에서 원균을 대했는지 모른다. 이런 생각은 현실과 어느 정도 부합될 것 같기도 하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이 원균에 관해 말한 것을 보면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음험한 괴물’, 혹은 ‘흉인(兇人)’같은 표현이 많다. 무의식은 이 꿈을 통해서 그림자로서의 원균과 화해할 것을 촉구하며 이때 취해야 할 이순신의 원균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본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은 윗 형님 같은 당당하고 여유 있는 자세가 아닐까?

1597년 7월 14일 꿈에서 이순신은 체찰사 이원익과 함께 어느 곳에 이르니 수많은 송장들이 있어 밭거나 목을 베거나 한다.<sup>93)</sup>

91)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위의 책, p437, p440.

92)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위의 책, pp440-441.

93)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43.

그 시체가 적인지 평민인지 알 수 없으나 목을 베는 것을 보면 왜적의 시체일 가능성이 있다. 꿈속에서 둘은 특별히 감정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전투가 지나간 뒤의 전장의 모습을 목격한 것인가?

1597년 8월 2일, 꿈에 임금의 명령을 받을 징조가 있다고 하였다.<sup>94)</sup> 분명 기쁜 징조임에 틀림없다. 7월 16일 모함하던 원균은 죽었다.

1597년 9월 13일의 꿈에서 임진년 대첩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9월 15일 신인(神人)이 나타나 전술의 승패를 가리켜주는 꿈은 모두 전투와 관계된 꿈으로 이순신의 대승을 예시하는 동시에 이순신의 비범한 전술을 가리키는 꿈이고 우의정(이원익)과 조용히 이야기한 10월13일의 꿈은 정치적 관심의 표명으로서 이 꿈들에서 어떤 불길하거나 신변의 위험을 가리키는 징조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다음 꿈은 1594년 2월 3일 한 눈이 먼 말의 꿈이라 두 번째로 나타난 위험을 알리는 경고의 꿈이다.

### 두 번째 경고:

〈꿈 1597. 10. 14〉

새벽 2시경 꿈에 내가 말을 타고 언덕 위를 가다가 말이 실족하여 개울 가운데로 떨어지긴 했으나 옆으러지지는 않았는데 막내아들 면이 붙들어 꺼안는 것 같은 형상이 있음을 보고 깨었다. (이것이 무슨 조짐인지 모르겠다).<sup>95)</sup>

이날 저녁 집안 편지를 전해 받고 아들 면(勉)의 전사 소식을 듣는다. 아버지 이순신의 슬픔은 처절했다.<sup>96)</sup>

민속 신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아들의 혼이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구하고 자신을 희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말의 실족’은 본능 세계가 튼튼치 못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한 눈이 먼 말의 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말은 모성 또는 아님아 상징이기도 하고 그것은 영혼의 인도자이면서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순신의 몸의 상태가 튼튼치 못하여 ‘실족’(헛디딤), 즉 순간적인 불균형을 일으

94)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51.

95)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86.

96) “길봉을 대강 뜯고 열의 글씨를 보니, 바깥 면에 ‘통곡’ 두 글자가 쓰여 있어 면이 전사하였음을 알고 간담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목 놓아 통곡, 통곡하였다. 하늘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어질지 못하신 고, 간담이 타고 찢어지고, 타고 찢어지는 것 같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이치에 맞거니와, 내가 죽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렇게 어긋난 이치가 어디 있으랴, 천지가 어두워 캄캄하고...” 이순신, 노승석(역)(2014): 앞의 책, 같은 페이지.

켜 치명적인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아직은 간신히 아들로 대변된 보상적인 신생 기능이 죽음을 막아주고 있기는 하지만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 이순신의 몸이 그만큼 약화된 사실을 알라는 무의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순신은 무슨 징조인지를 묻고 있을 뿐이다.<sup>97)</sup> 아들의 죽음은 이순신의 몸과 마음의 무의식적 체계의 질서를 흔들어 놓았다. 그의 무의식적 신생 기능이 받쳐주지 못했다면 무너져버렸을 것이다.

아들 면의 상실은 이후 이순신 자신이 전사하기까지 그에게 빠져들던 슬픔을 안겨주었고 10월 19일 꿈에서 고향집의 진이 내려온 것을 보고 아들 생각에 통곡하였다. “비통한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여 누를 길이 없구나. 누를 길이 없구나(悲慟摧裂 難抑難抑).” 이날 코피를 한 되 남짓이나 흘렸다.

11월 7일에는 죽은 면을 꿈에서 보고 울부짖고 통곡하였다고 기술했다. 아들에 대한 애도가 이렇듯 격렬한데 바로 다음 날 상실에 대한 슬픔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꿈이 나타났다.

#### 물과 물고기:

〈꿈 1597. 11. 8〉

사경 꿈에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았다.<sup>98)</sup>

이순신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투 중에 나온 꿈이다. 장수가 적의 동태에 대해 예의 주시하면서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할 시기에 그것도 아들의 죽음을 못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슬퍼하는 꿈을 꾸 다음 날, 지극히 평화로운 꿈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꿈은 현대의 분석심리학적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꿈이다. 물고기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심상으로 이 꿈에서는 ‘무의식 속의 살아 움직이는 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물은 그 깊이, 생동성, 어느 모로 보나 ‘무의식’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는 것은 무의식의 여러 살아있는 내용들을 ‘의식화’하

97) 이순신은 1572년 28세 시 훈련원 별과에 응시하였는데 이때 말이 넘어져서 왼쪽 다리에 골절을 입은 사실이 있다. 이때 받은 상처(Trauma)가 꿈속에서 25년 지나 재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말과 기사는 한 몸인데 말의 실족은 말의 문제일 뿐 아니라 기사의 말 조 정술의 미숙과 심적 불안정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98)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앞의 책, p494.

는 행위다. 현대 같으면 꿈을 보면서 무의식적 콤플렉스를 깨닫고 의식에 동화시켜가는 분석 작업이 될 것이다. 이순신은 꿈에서 자기 통찰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순신 시대의 언어로 말한다면 이순신은 그 참담한 고통 속에서 무의식으로부터 물고기, 양식을 얻었다. 그는 자연 속으로 발을 담근다. 마치 하나의 치유의 의식처럼...

### 아들을 위한 복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다음 해 2월 꿈에 복수의 형태로 이어진다. 박종평은 《행록》에 기록된 다음과 같은 꿈을 소개했다.

〈1598년 2월〉

고금도로 진을 옮기고 있던 어느 날 이순신이 깜박 낮잠에 빠졌는데, 꿈에 죽은 아들 면이 앞으로 와서 슬피 울면서 하는 말이 “저를 죽인 왜적을 아버지께서 죽여주십시오”했다. 그래서 “네가 살아있을 때 장사(?)였는데 죽어서는 적을 죽일 수 없느냐?”라고 했다. 그러자 면은 “제가 그놈의 손에 죽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감히 죽이지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리고는 이순신은 잠에서 깨었다.

아들 생각에 슬픔을 못 이겨 다시 눈을 감았더니 몽롱한 가운데 면이 또 나타나났다.

“아버지가 자식의 원수를 갚는 일에 저승과 이승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원수를 진에 놓고는 어찌 제 말을 예사로 듣고 죽이지 않습니까?” 하며 슬피 울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다.<sup>99)</sup>

또다시 깜짝 놀라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주위 부하들에게 알아보았더니 과연 새로 잡혀 온 왜적 한 명이 배에 갇혀 있었다. 그자를 불러 자세히 캐물으니 바로 면을 죽인 그자였다. 그래서 그를 죽여 아들의 원수를 갚았다.

이것은 이순신의 마지막 꿈으로 알려졌으나 이순신이 직접 쓴 꿈이 아니다. 이것이 후세 사람이 상상하며 기술한 ‘전설’인지 실제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원한을 가진 혼이 꿈에 나타나 복수를 요구하고 원수의 소재를 암시하여 결국 범인을 응징하게 된다는 내용은 동서고금의 원령전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sup>100)</sup> 그러나 이런 전설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들

99) 박종평 (2013): 앞의 논문, p125.

100) 이부영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pp189-203.

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심령심리학(parapsychology)에서 실제로 보고되는 동시적 현상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꿈이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순신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1598년 2월 이후 11월 19일 노량해전 중 이순신이 전사하기까지 꿈에 대한 기술이 없다. 이순신의 죽음을 예고할 만한 징조를 꿈에서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1597년 10월 14일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의 실족에 관한 꿈이 있기는 했으나 아들 손에 구출되었고 아들의 죽음을 그토록 애도했으나 같은 해 11월 8일의 꿈은 건강하고 평화롭고 안정된 창조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의식에는 끝이 있으나 무의식은 끝이 없고 영속적이라는 폰 프란츠의 말이 생각난다.<sup>101)</sup> 아들의 복수를 한다는 1598년 2월의 꿈이 마치 사족(蛇足)처럼 보인다. 아들의 죽음이 이순신의 의식생활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는 《난중일기》를 보아도 알만하다. 1598년 2월의 꿈대로 아들의 원수를 찾아내어 죽였다면 원한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미래의 희망이기도 한 막내아들의 상실은 그의 존재 이유에 커다란 허무감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영웅이란 무엇인가?

Jacob Grimm은 “영웅이란 악에 대항해 싸우며 불사(不死)의 행적을 통해 신적인 영광에 도달한 사람<sup>102)</sup>”이라 하였다. 또한 영웅은 악룡, 거인, 악마로 구체화 된 모든 혼돈의 세계, 혹은 자신의 나라를 황폐화하고 생존과 문화를 위협하는 공격자에 대항하여 질서를 위해 싸우는 자이다.<sup>103)</sup> 성인식처럼 영웅은 죽음의 고통을 겪는다. 죽음은 그들을 고귀한 지위로 옮겨서 불사성(不死性)을 보증한다.<sup>104)</sup> 이순신에게 영웅의 칭호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 같다.

그는 어떤 영웅이던가? 무의식을 보면 그는 타고난 영웅이었다. 즉, 신의 선택을 받은 자이다. 영웅신화에서 영웅의 과제는 괴물을 제치하는 것이었다. 그가 싸워서 물리쳐야 했던 공공의 적은 일차적으로 ‘왜적’이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전부터 줄곧 싸워온 ‘괴물’이 있었다. 그것은 <부정부패, 사리사욕>, 공명정대

101) Von Franz ML, 한오수(역) (2017): 《꿈과 죽음》, 한국융연구원, 서울, p10.

102) Herder Lexikon (1993): *Germanische und keltische Mythologie*, Herder, Freiburg, p85, 재인용.

103) Lurker M (1979): *Wörterbuch der Symbolik*, Alfred Körner Verlag, Stuttgart, p223f.

104) Jobs G (1962):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Part 2*, The Scarecrow Press, NewYork, p762.

한 윤리의식에 끊임없이 도전해온 인류사회의 악습이었다. 이 윤리의식에 굳이 ‘유교적’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 공명정대(公明正大)함은 시대 의식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마도 ‘합리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일지 모른다. 무질서(Unordnung), 나가서 혼돈(Chaos)의 대극인 셈이다.

외부의 ‘괴물’과의 싸움은 목숨을 건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서 승자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이순신의 꿈에는 ‘악룡’이나 ‘괴물’과의 싸움의 흔적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호랑이를 때려잡고 그 가죽을 흔드는 꿈에서 그 한 단서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 꿈을 이미 언급한 대로 파괴적인 모성의 부정적 사고(negative animus)의 극복, 혹은 그것의 창조적이며, 의미 있는 것(가죽)으로의 변환의 징조로 볼 수도 있다. 그 파괴적인 생각이란 이순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한 유교의 인생관, 세계관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하는 집요한 물음: ‘다 소용없다는’ killing anima, 혹은 animus 일 것이다. 그는 끝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켰고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는 그림자를 동화시켜서 살아남아 존경받는 재상으로 평생을 마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현자의 길보다 영웅의 길을 택했다. 아니 그가 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의 ‘자기’가 실현되었다.

이순신에게 어머니는 자애로운 어머니인 동시에 강직한 어머니의 아니무스로 경험되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아버지를 대신한 어머니의 아니무스가 특히 활발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아들에게 어머니는 아니마의 투사상일 수도 있다는 융의 견해대로 어머니는 이순신에게 어머니인 동시에 아니마였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경우 아내는 그늘 속에 조용히 존재한다. 긍정적 모성콤플렉스가 공적으로 지지되고 심지어 강조되던 시대의 정경이다.

영웅 지그프리트(Siegfried)와 그의 애인 부룬힐데(Brünhilde)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융은 ‘아니마로서 부룬힐데는 ‘어머니-아내-여동생’이라 했다. 아니마 상은 또한 필연적으로 모성이마고의 다른 측면을 동반하는데 그것은 물과 잠수의 측면이라 하면서 모성적 깊이와 재탄생의 터인 물, 즉, 무의식이 지닌 몸서리치는 공포에 언급하고 있다.<sup>105)</sup> 이순신과 어머니의 절대적으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신념을 생각할 때 그 반대극이 그림자로서 이순신의 무의식에 억압되어 이순신의 의식을 괴롭히는 충동으로 자극되었을 것임을 짐작

105) Jung CG (1952): *Symbole der Wandlung*, Ibid., p677.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무시무시한 어머니 상은 보고된 꿈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괴로운’ 꿈들 속에 있었을지 모른다. 아니면 이순신은 내면의 대극을 일기에 푸념하고 아니마의 창조적 표현을 통해 자기치유를 행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순신은 바다에서 싸우는 수군(水軍)의 총수였다. 그는 물속에서 물결과 함께 물에 실리고, 물을 가르며 싸웠다. 바다는 그의 아니마, 바다는 무의식 그 자체, 어머니의 품의 상징이다. 그리고 달밤의 바다를 보며 그가 시를 읊을 때, 거문고와 피리 소리를 들을 때, 그는 치유의 여신, 구원자로서의 아니마를 경험하였다. 그의 현실적인 여성과의 관계는 《난중일기》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아마 좀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가부장 사회의 관습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 맺는 말

이상에서 나는 이순신이 《난중일기》에서 보여준 인간상의 여러 측면을 조명한 뒤, 그가 일기에 기술한 꿈을 박종평이 《행록》에서 발견한 세 개의 꿈을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이순신 자신의 해석, 분석심리학적 입장의 상징 해석을 비교하면서 꿈의 내용이 지닌 현실과의 관계, 무의식 고유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꿈에 대한 꿈꾼 사람의 연상과 고유의 문맥, 꿈꾸기 전의 현실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꿈을 바르게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웠다. 그러므로 나의 꿈 해석은 그런 면에서 제약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꿈에서 나는 분석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원형상과 ‘자기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들은 적군이 왔다고 소리치며 잠을 깨운 ‘백발의 노인’으로, 전술을 가르치는 ‘신인(神人)’으로, ‘용(龍)’의 이미지, 움직이는 섬, 바위산, 말의 이미지로, 호랑이와 이를 제압하는 영웅상으로, 아이 또는 사내아이 원형상으로, 아니마의 상으로서의 산 위의 미인, 물과 물고기, 그리고 가족의 혼령들(아버지, 형님, 아들), 영의정의 상들로 나타났다.

원근으로 대변된 그림자원형상은 이상하게도 그토록 이순신의 의식을 흔들 어 괴롭혔음에도 아마 그랬기 때문에 꿈에서 오직 한번, 그것도 희망적인 모습

으로 등장했다.

무의식은 이순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의 꿈에 나타난 원형상의 배열, 활성화로 미루어 볼 때, 무의식, 혹은 정확하게 말해서 무의식의 핵심 조절자인 ‘자기’는 이순신을 신들의 제자, 신들의 뜻을 따르는 자, 진정한 영웅, 더 나아가, 앞에서 말했듯이, 임금에 버금가는 자로 보았다.

영의정의 꿈을 통해 그의 정치적 역량이 점점 자신의 것으로 동화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꿈에서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말하자면 그는 신이 선택한 자이다. 무의식은 때때로 아이의 이미지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었고 가장 어려웠던 1597년 전반기에 가족의 혼령들을 보내 고통을 나누게 하면서 또한 범을 때려죽이고 가족을 휘날리는 이미지로 울적한 마음에서 일어서게 했다. 그리하여 저 ‘물고기잡이’의 평화로운 이미지로 그의 심혼을 쉬게 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 사실을 어느 만큼 인지하였을까? 원형적인 꿈을 그는 대개 ‘무슨 징조일까’ 묻는 것으로 지나갔다.

무의식은 또한 ‘한 눈이 먼 말’과 ‘실족한 말’로 경고했는데 그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몰랐던 것 같다. 심란한 꿈, 어지러운 꿈이라고 부른 괴로운 꿈의 내용이 궁금하다. 아마도 그것들 가운데는 깊은 뜻을 담은 원형적인 꿈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꿈은 분명 이순신에게 그가 즐겨 찾은 점괘처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는 스승과 같은 것이었다. 이순신은 꿈에서 ‘징조’가 확실치 않으면 그냥 넘어갔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구태여 지적으로 해석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태도가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아팽창에 빠지는 위험을 막아주었는지 모른다. 비록 이순신의 꿈의 해석이 대부분 군사적 구체적, 길·흉 판별의 해석이기는 했지만 그는 꿈을 천명(天命)처럼 여겼던 것 같다. 꿈을 보는 것은 점을 치는 작업과 같이 이순신의 사고를 넓히고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믿는다.

《난중일기》를 통해서 볼 때 인간으로서 이순신은 철저한 유교의 충, 효 정신을 삶의 본보기로 살아온 다정다감하면서도 엄격한 선비 장수였다. 그의 도덕적 완벽성은 자기 자신이나 주위 사람의 사소한 일탈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원균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악’의 무리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도 완전할 수 없는 인간으로, 때론 공명심에 불타고 부하를 신뢰하는 나머지 거짓 보고를 하는 실수를 하기도 했다. 그의 도덕적 견고

함이 또한 그의 약점이 되기도 했다. 무의식은 꿈을 통하여 그림자와의 화해를 권했고 그의 편견(외눈박이 말)과 그의 유약함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신인(神人)의 제자’이며 ‘용의 친구’임을 증명했다.

국가 민족의 엄청난 위난을 온몸으로 타개하면서 이순신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고 사후에 신이 되었다. 그가 받은 고통: 오해와 중상모략과 박해가 아무리 영웅이 겪어야 할 시련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이 민족이 청산해야 할 악습임을 이순신 신화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 참 고 문 헌

- 강영오 (2003): “이순신 고행과 사생관”, 《이순신연구논총》, 1,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 김경수 (2013): “《난중일기》를 통해 본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1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 노승석 (2007): “충무공의 전사에 대한 문헌적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8,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 박종평 (2013): “《난중일기》 속의 꿈과 척자점으로 본 인간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1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 박혜일, 최희동, 배영덕, 김명섭(역) (2014): 《이순신의 일기(개정증보판)》, 서울대출판원, 서울.
- 박혜일, 최희동, 배영덕, 김명섭(역) (2016): 《이순신의 일기 난중일기(개정증보판)》, 시와진실, 서울.
- 이병도(역주) (1956): 《삼국유사》, 동국문화사, 서울.
- 이부영 (1984): “한국인의 꿈에 나타난 원형상(1)-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정신의학보》, 8(1).
- \_\_\_\_\_ (1984): “한국 전래해몽의 특징에 관한 연구(1)”, 《정신의학보》, 8(4).
- \_\_\_\_\_ (1984): “Jung의 모성상과 모성콤플렉스론”, 《심성연구》, 2(2), 한국분석심리학회, 서울.
- \_\_\_\_\_ (2011): 《분석심리학(제3판)》, 일조각, 서울.
- \_\_\_\_\_ (2011): 《한국민담의 심층분석》, 집문당, 서울.
- \_\_\_\_\_ (2012): 《한국 샤머니즘과 분석심리학》, 한길사, 서울.
- \_\_\_\_\_ (2021):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③ 《그림자-우리 안의 어두운 반력자》, 한길사, 서울.

- \_\_\_\_\_ (2021):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② 《아니마 아니무스》, 한길사, 서울.
- \_\_\_\_\_ (2021): 분석심리학의 탐구 3부작 ③ 《자기와 자기실현》, 한길사, 서울.
- 이순신, 노승석(역) (2014): 《증보교감완역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서울.
- 이순신, 노승석(역) (2016): 《쉽게 보는 난중일기》, 도서출판 여해, 서울.
- 임원빈 (2013): “인생관을 통해 본 이순신”, 《이순신연구논총》, 1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 \_\_\_\_\_ (2018): “이순신의 사생관과 순국의 의미”, 《이순신연구논총》, 29,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 장시광 (2008): “《난중일기》에 나타난 이순신의 일상인으로서의 면모”, 《온지논총》, 20, 온지학회, 서울.
- 장학근 (1993): “충무공 이순신의 하옥죄명, 전몰상황, 자살론, 순국론에 관한 검토”, 《학예지》, 3, 육군사관학교육군박물관, 서울.
- 현용준 (1976): 《제주도 전설》, 서문당, 일산.
- 홍순승 (2012): “이순신 정론Ⅴ: 이순신 사망설의 진위논쟁”, 《이순신연구논총》, 17,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서울.
- 한국문화상징사전편집위원회 (1992): 《한국문화상징사전 1》, 동아출판, 서울.
- \_\_\_\_\_ (1995): 《한국문화상징사전 2》, 동아출판, 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경기도.
- 赤松智城, 秋葉隆 (1937): 《朝鮮巫俗の研究(上)》, 大阪屋號書店, 大阪.
- 武田祐吉(역주) (1958): 《古事記》, 角川書店, 東京.
- 谷川健一 (1999): 《日本の神々》, 岩波新書 618, 岩波書店, 東京.
- 上田正昭 (1970): 《日本神話》, 岩波新書 748, 岩波書店, 東京.
- Campbell J (1968): *The Hero with a Thousand Faces*, Princeton Univ. Press, New Jersey.
- Cooper J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Thames and Hudson, London.
- Herder Lexikon (1993): *Germanische und keltische Mythologie*, Herder, Freiburg.
- Jobs G (1962): *Dictionary of Mythology, Folklore and Symbols Part 2*, The Scarecrow Press, NewYork.
- Jung CG (1951): *Aion*, Rascher-Verlag, Zürich.
- \_\_\_\_\_ (1951): *Zur Psychologie des Kind-archetypus (in) C.G. Jung u K. Kerényi, Einführung in das Wesen der Mythologie*, Rhein Verlag, Zürich.
- \_\_\_\_\_ (1952): *Symbole der Wandlung*, Rascher-Verlag, Zürich.
- \_\_\_\_\_ (1954a): *Die Psychologischen Aspekte des Mutterarchetypus, (in) Von den Wurzeln des Bewusstseins*, Rascher-Verlag, Zürich.
- \_\_\_\_\_ (1954b): *Von den Wurzeln des Bewusstseins*, Rascher-Verlag, Zürich.
- \_\_\_\_\_ (1958): *Praxis der Psychotherapie*, G.W. Bd.16, Rascher-Verlag, Zürich.
- \_\_\_\_\_ (1967a): *Über die Energetik der Seele (in) C. G. Jung, G.W. Bd.8*, Rascher-Ver-

- lag, Zürich.
- \_\_\_\_\_ (1967b): *Analytische Psychologie und Weltanschauung (in) C. G. Jung, G.W. Bd.8*, Rascher-Verlag, Zürich.
- \_\_\_\_\_, 한국융연구원 C.G. 융 저작 번역위원회(역) (2001): C.G. 융 기본 저작집 제 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2): C.G. 융 기본 저작집 제 2권, 《원형과 무의식》, 솔출판사, 서울.
- \_\_\_\_\_ (2008): C.G. 융 기본 저작집 제 4권, 《인간의 상과 신의 상》, 솔출판사, 서울.
- \_\_\_\_\_ (1979): *Wörterbuch der Symbolik*, Alfred Körner Verlag, Stuttgart.
- Peterich E (1955): *Götter und Helden der Germanen*, Walter Verlag, Olten.
- \_\_\_\_\_ (1958): *Götter und Helden der Griechen*, Walter-Verlag, Olten.
- Rönau E (1925): *Helden von Hellas*, Artur Wolf Verlag, Wien.
- Simek R (1995): *Lexikon der germanischen Mythologie*, Alfred Körner Verlag, Stuttgart.
- Von Franz ML (1985): *Träume*, Daimon Verlag, Zürich.
- \_\_\_\_\_, 김현진(역) (2019): 《창조신화》, 한국융연구원, 서울.
- \_\_\_\_\_, 한오수(역) (2017): 《꿈과 죽음》, 한국융연구원, 서울.

Shim-Sŏng Yŏn-Gu 2022, 37 : 2

<ABSTRACT>

**Dreams of Admiral Yi Sun-sin (1545–1598) in Nanjung Ilgi  
(Diary in War Time) and Some Aspects of His Personality:  
From Jungian Viewpoint**

Bou-Yong Rhi, M.D., Ph.D.\*

This study aims at the psychological elucidation of some conscious aspects of the personality of Yi Sun-sin (1545–1598), the Korean national hero, and the unconscious teleologic meanings of his dreams mentioned in Nanjung Ilgi (Diary in War Time) from the viewpoint of analytical psychology of C.G. Jung.

Yi Sun-sin was a man of discipline, incorporated with the spirit of Confucian filial piety, *hyo* (hsiao) and royalty, *chung*. He was a stern man but with a warm heart. In his diary, Yi Sun-sin poured forth his feelings of suffering, despair, and extreme solicitude caused by slanders of his political opponents, his grief for the loss of mother and son, and his worries about the fate of his country, which the Japanese invaders now plundered. The moon night offered him the opportunity to touch with his inner soul, by reciting poems, playing Korean string, 'Keomungo', and flute. Further, he widened his scope by asking for the answers from the 'Heaven' through divination and dream. Yi Sun-sin's attitude toward his mother who raised the future hero and maternal principles were considered in concern with the Jungian term 'mother complex'. Won Gyun, Yi Sun-sin's rival admiral, who persistently accused Yi Sun-sin of 'slanders,' certainly represents the unconscious shadow image of Yi Sun-sin. The reciprocal 'shadow' projection has intervened in the conflicting relationship between Yi and Won. In concern to the argument for the suicidal death of Yi Sun-sin, the author found no evidence supporting such an argument, No trace of latent suicidal wish was found in his dreams. For Yi Sun-sin, the determination of the life and death depends on Heaven.

32 dreams from the diary and 3 from other historical references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the Jungian way. Symbols of anima, Self, and individuation process were found. His dream repeatedly suggests that Yi Sun-sin is an extraordinary man chosen by the divine man (神人). In the dream, Yi Sun-sin was a disciple of the divine man receiving instructions on various strategies, and he alone could see the great thing or events. The dream of a beautiful blue and red dragon, whom he was friendly touching, indicates Yi Sun-sin's eligibility for the kingship. Yi Sun-sin seemingly did not aware of this message of the unconscious. Perhaps he sensed something special but did not identify with 'the disciple of gods' and 'royal dragon' in his dream. His modest attitude toward the dream has prevented him from falling into ego inflation. There were warning signals in two dreams that suggested disorders in the dreamer's instinctive feminine drive. Spirits of the dead father and brothers appear in the dream, giving advice or mourning for the death of Sun-sin's mother. Though Yi Sun-sin was a genuine Confucian gentleman, a dream revealed his unconscious drive to destroy the Confucian authoritative 'Persona' by trampling down the cylindrical traditional Korean hat. To the dreams of synchronicity phenomena Yi Sun-sin immediately solves the problem in concrete reality. He understood dreams as valuable messages from the superior entity, for example, the Confucian Heaven (天) or Heaven's Decree (天命). Furthermore, the 'Heaven' presumably arranged for him the way to the national hero and imposed necessary trials upon him.

Both his persecutors and advocates of him guided him in the way of a hero. Yi Sun-sin followed his destiny and completed the living myth of the hero. His mother, King Seon-jo, and prime minister Liu Seong Yong, all have contributed to embodying the myth of the hero. Yi Sun-sin died and became god, the divine healer of the nation.

**KEYWORDS** : Yi Sun-sin; Nanjung Ilgi; Dream; Personality; Hero; Jungian interpretation.